

소그룹 발전을 위한 EPIC 모델 연구
: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소그룹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송병근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3년 5월

Copyright © 2023 Byoung Geun So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EPIC MODEL FOR DEVELOPMENT OF SMALL GROUP : A CASE STUDY OF GANEUNGJEIL CHURCH, KOREA

Byoung Geun Song

Jangseok Church, Seoul

Korean churches have developed through small groups.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e growth of the church, but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small group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hurch development. So small groups are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church and individual faith, but the form and content of Korean church small groups have not changed. In particular, because of COVID-19, it has become impossible for each church to participate in small groups. So we need a small group inspection through the COVID-19 period.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the present age through the EPIC theory and studied the EPIC small group model suitable for it.

The present age is the EPIC age. We are in a culture where we buy each other's experiences and participate in roles in other fields. We live in a society where the economy moves not by one sense but by multiple senses and is connected to each other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refore, small groups are not one-sided, doctrinal and organizational, but now we need a small group model that mobilizes all senses and participates in and connects to each other's experiences. In this regards, theological grounds and detailed studies on the EPIC small group model should be proposed.

In this study, the case of the youth group of Ganeungjeil church was selected as the EPIC small group model. This study focused on how the Ganeungjeil church youth group applied the EPIC elements to various types of small groups.

A survey was conducted on young people who experienced EPIC small groups. Through the EPIC small group, they came to realize the essential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small group and that the EPIC small group had an impact on their faith development.

국문초록

소그룹 발전을 위한 EPIC 소그룹 모델 연구

: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소그룹 사례연구

송병근

장석교회, 서울

한국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 부흥, 발전해 왔다.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 소그룹은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부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소그룹은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 소그룹은 예전 모습에서 변화되지 않고 형식과 내용이 시대를 따라 바뀌지 못했다. 특별히 COVID-19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소그룹 참여는 불가능 해졌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소그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PIC 이론을 통해 현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에 맞는 EPIC 소그룹 모델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 시대는 EPIC 시대이다. 서로의 경험을 구매하고, 다른 분야의 역할에 참여하는 문화 속에 있고, 하나의 감각이 아닌 여러 감각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가 움직이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소그룹도 이제는 일방적이고, 교리적이고, 조직 안에 갇힌 형식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하며 서로의 경험에 참여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그룹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EPIC 소그

룹 모델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연구가 제안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EPIC 소그룹 모델로 가능제일교회 청년부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가능제일교회 청년부가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을 시행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EPIC적 요소를 접목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EPIC 소그룹을 경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EPIC 소그룹을 통해 소그룹의 본질적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되었으며, 신앙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표 목차	ix
그림목차	x
감사의글	xi
I. 서론	1
문제제기	1
연구목적	5
연구방법	6
연구범위와 제한성	6
연구구조	7
II. 교회 소그룹의 이해	8
소그룹의 목적	8
소그룹의 특징	9
소그룹의 중요성	11
성서적 근거	12
신학적 근거	16
목회적 근거	18
교회사적 근거	21
소그룹의 유형	25

한국 교회 소그룹의 한계	28
한국 교회 소그룹의 문제점	30
III. EPIC의 이해	33
EPIC 이론	33
EPIC 사회	34
IV. EPIC 소그룹 적용	49
EPIC 소그룹	49
EPIC 소그룹 모델	50
EPIC 소그룹: 경험(Experience)	50
EPIC 소그룹: 참여(Participation)	55
EPIC 소그룹: 이미지/Images)	59
EPIC 소그룹: 관계(Connection)	62
EPIC 소그룹 평가	68
V. 요약 및 결론	75
참고문헌	80
부록	84

표 목차

<표1> 문화토론 계획	58
<표2> 문화 예배 순서	61
<표3> 단기 선교 피드백	69
<표4> 단기 선교 사역별 피드백	70

그림 목차

<그림1>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 변화	2
<그림2> 지난 1주간 가족 간 신앙적 교류 활동	3
<그림3> 출석교회 항목별 만족도	4
<그림4> 소그룹 활동으로 인한 변화	12
<그림5> 소그룹의 체계적 활동 만족도	30
<그림6>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	36
<그림7>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 평가	37
<그림8> 유튜버 도전의향 조사 설문결과	39
<그림9> 국내 구독자수 기준 유튜브 채널수	39
<그림10> 메타버스 시장 규모	40
<그림11> 메타버스 이용자 현황	41
<그림12> 더 현대 서울 리테일 테라피	44
<그림13> 인포그래픽 활용사례	45
<그림14> 스터디 캠 개설 추이	47
<그림15> 필리핀 단기선교 정리	51
<그림16> 현지 교통수단 이용 - 전도 및 유명지 탐방	53

<그림17> 현지 청년들과 소그룹	54
<그림18> 문화 토론	58
<그림19> 주간 큐티 나눔 보고서	64
<그림20> 여름성경학교 지원요청 내용	65
<그림21> 교회학교 여름사역 파송 신청	66
<그림22> 지역봉사단	67
<그림23>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 신앙활동 내용 비교	69

감사의 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시작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학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정 중에 여러가지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때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배운 성실함과 신앙의 자세로 지금까지 걸어 올 수 있었고, 항상 잘 하고 있다며 응원해 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박사 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학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석교회 이승현 담임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구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진초록과 아빠가 공부한다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는 사랑하는 주아와 루아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고, 가족들의 화목 덕분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을 담아 학업을 하며 한국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많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송병근

제 I 장

서론

문제제기

한국 교회는 COVID-19를 겪으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사람들은 모이지 못했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교회들은 우왕좌왕했고, 교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각자 신앙을 지켜야 했다. 따라서 COVID-19는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개인의 신앙훈련을 잘 시켜왔는지를 볼 수 있는 시험대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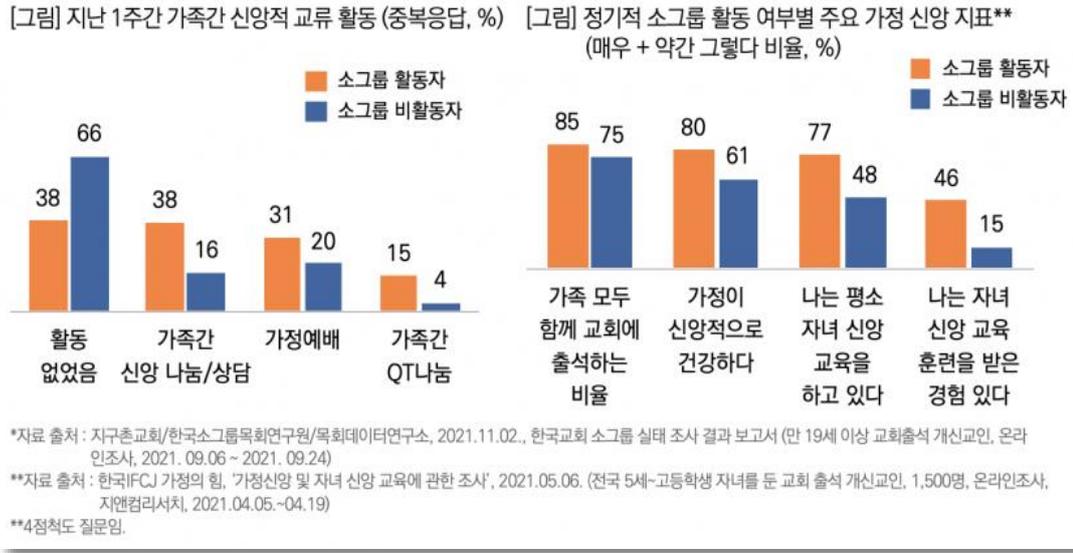
그렇다면 그동안 교회에서 개인 신앙훈련은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 교회의 개인 신앙훈련은 담임목회자의 설교만이 아니라 교회 소그룹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큐티, 성경 읽기, 제자훈련, 성경 공부, 전도, 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소그룹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교회들마다 있었음에도 COVID-19 이후 개인의 신앙은 점점 약화 되었는데, 이것은 곧 소그룹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그림1>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 변화 (개신교인 전체, %)¹



물론 개인의 신앙 약화가 소그룹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소그룹이 개인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지구촌교회 만 19세 이상 출석 교인을 대상으로 가족 간 신앙적 교류 활동을 조사한 결과 소그룹 활동자가 소그룹 비활동자에 비해 신앙적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소그룹은 개인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¹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8&page=2 [2023년 1월 20일 취
중접속]



<그림2> 지난 1주간 가족 간 신앙적 교류 활동²

소그룹이 개인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교회의 발전과 성장과도 연결된다. COVID-19 기간을 겪으면서 2022년 전국 개신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소속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장 예배자가 온라인 예배자 보다 약 20% 높았으며,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56.5%가 매우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³ 그만큼 소그룹을 통한 개인의 신앙은 자신의 성장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참여와 부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회 소그룹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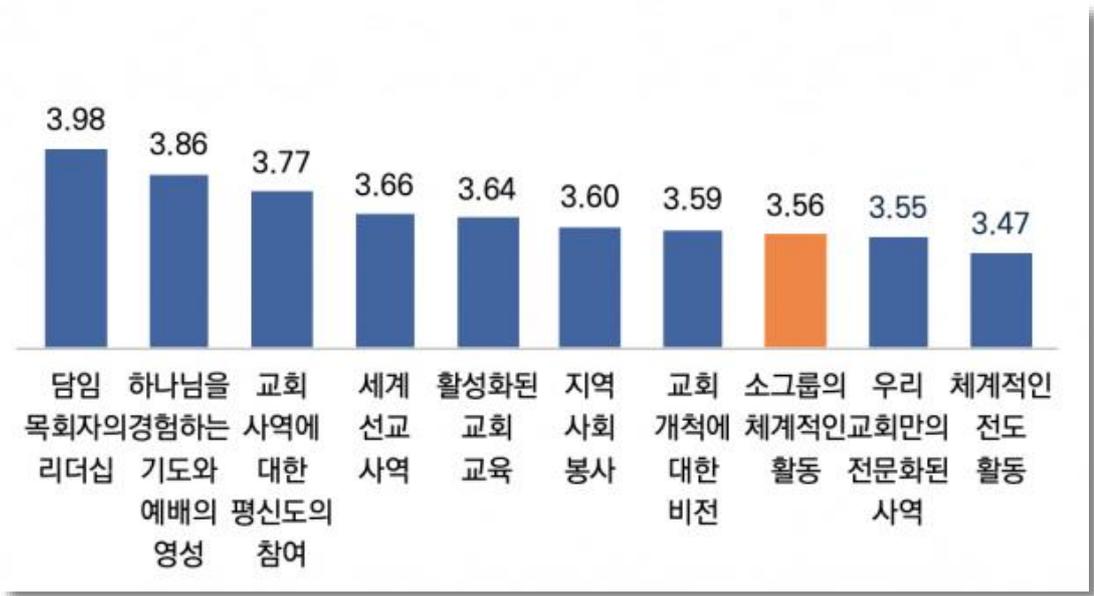
그렇다면 소그룹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국목회자협의회 기획실장 이상화 목사는 목회자들이 소그룹을 목회적 관점에서 좁게 바라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²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1&page=2 [2023년 1월 20일 취종접속]

³ 지용근, “한국 교회 트렌드에서 2023년 목회 방향과 전략을 읽다,” *목회와 신학* 403 (2023), 152.

교과서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지적 했으며,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표인 채이석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소그룹을 교재에 의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⁴ 대부분의 교회 소그룹은 여전히 리더가 전하고 나머지는 듣기만 하는 일방적 형식이며, 조직과 체계로 나누어진 조직적 소그룹이다. 교회의 예배 형태는 시대의 흐름과 특정 교회에서 인기를 얻은 형태에 따라 바뀌어 가지만 소그룹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변하지 않는 소그룹으로 인해 소그룹 참여도는 줄어들고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본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서 담당하는 교구는 37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37개의 구역 중에 정기적 모임을 하는 구역은 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3개의 구역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필요성을 못느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 등이다. 점점 소그룹 모임이 줄어들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COVID-19 이전부터 진행되었는데, 2017년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석교회 만족도 10개의 항목 중 소그룹은 8번째인 하위권을 차지했다.

⁴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84> [2023년 1월 10일 최종접속]



<그림3> 출석교회 항목별 만족도⁵

따라서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부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그룹은 COVID-19를 통해 그 중요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고, 소그룹의 기존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개인과 교회의 신앙 성장에 중요한 소그룹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복음을 제대로 나누고 소통하지 못하는 방식에 있다고 의문을 가졌다.

연구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소그룹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목적은 소그룹이 어떠한 특징과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

⁵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1&page=2 [2023년 1월 10일 취
중접속]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소그룹이 교회의 형식 중의 하나이거나 교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오는 프로그램이나 조직의 한 형태가 아니라 소그룹의 특성에 맞춰 교회 소그룹이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그룹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특징과 성격은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과 연결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그것이 적용된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소그룹을 통해 EPIC 소그룹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논문은 먼저, 소그룹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 되어야함을 소그룹의 중요성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소그룹의 중요성의 근거를 성서적, 신학적, 목회적, 교회사적으로 정리하고, 반대로 소그룹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연구, 분석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소그룹 모델에 적합한 이론과 기초를 연구한다.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을 소개하고, 현대 사회가 EPIC 시대를 살고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EPIC 소그룹 모델이 필요함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EPIC 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통해 EPIC 소그룹 모델을 제시한다.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소그룹을 소개하며,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EPIC 소그룹 모델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연구 범위와 제한성

본 논문의 목적은 포스트모던 시대, COVID-19 시대에 대한 학술적 연구 논문이라기 보다 현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소그룹을 변화시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으로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을 소개하며, 이론을 접목한 EPIC 소그룹 모델을 목회 현장에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이 잘 적용된 소그룹 프로그램 소개와 구성원들의 소감과 평가를 연구 범위로 둔다. 가능제일교회 청년부는 40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안에는 다양한 연령과 그들만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개된 소그룹 프로그램들이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EPIC 이론의 핵심인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잘 이해하고, 이것이 소그룹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한다면 개교회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소그룹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목회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연구구조

본 논문의 구조는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려고 한다. 제 I 장에서는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과 문제제기, 연구 방법,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등 논문의 구조에 대해 다룬다.

제 II 장에서는 교회 소그룹의 이해로 소그룹의 목적, 특징을 살펴보고, 소그룹의 중요성을 성서적 근거, 신학적 근거, 목회적 근거, 교회사적 근거로 살펴본다. 또한 소그룹의 종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III 장에서는 레너드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을 정리하고, 현대 사회가 EPIC시대 속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사회 현상을 통해 분석한다.

제 IV 장에서는 EPIC 소그룹을 적용한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사례를 중심으로 EPIC 소그룹 모델을 살펴보고 구성원들의 평가를 소개한다.

마지막 제 V 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평가, 그리고 결론과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제 II 장

소그룹의 이해

소그룹의 목적

소그룹이란 말 그대로 작은 모임을 뜻한다. 모임, 집단을 뜻하는 영어 “group” 에, 작다 라는 한자 “小(작을 소)” 가 붙어서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집단이나 작은 모임” 을 말한다. 따라서 몇몇 개인이 모여 이룬 작은 무리를 소그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사물이나 기관, 단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정의 뿐만 아니라 목적을 알아야한다. 예를 들어 전화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화기의 단어적 정의, 유래 등을 알아도 좋은 방법이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전화기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다. 전화기가 왜 존재하는지, 전화기를 통해서 하려는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전화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그룹의 이해 역시 그렇다. 소그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어의 뜻으로 정의내리며 이해하기 보다는 존재의 목적을 통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소그룹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하다. 왜냐하면 소그룹의 존재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를 알면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소그룹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성경공부, 동아리, 전도대, 제자훈련, 셀그룹, 구역모임 등 어느교회나 소그룹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은 대체로 두 가지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그룹 그 자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Neal F. McBrid는 소그룹의 존재목적 방향을 “신자 상호간에 덕성함양과 교제를 위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모이는 모임” 이라고 설명한다.⁶ 소그룹 내부의 발전과 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다. 그것이 신앙이든, 친교이든, 봉사나 나눔이든 종류가 무엇이든 소그룹 자체를 위하여 존재한다. 둘째, 대부분의 소그룹의 위치는 전체그룹에 속해 있다. 즉 소그룹이 속해 있는 전체 집단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전체 집단의 문제나 특정주제에 대해 토의를 거쳐 의견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말하면 전체 집단의 문제와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풀어가고 결정내리기 위하여, 전체 집단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소그룹은 존재한다. 이것은 병원, 학교, 공공기관, 국회, 방송국 등 어느 집단에서나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며 교회 소그룹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인들 전체에게 교회의 주제와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교인들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보다 잘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회전체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소그룹을 포함하는 전체 그룹이 어떠한 특성과 형태를 가졌느냐에 따라 약간의 상이점은 있지만 소그룹은 소그룹 자체와 전체 그룹의 발전, 성장, 문제해결 등을 위해 존재한다.

소그룹의 특징

소그룹의 목적은 결국 전체 그룹과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태로서 소그룹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채이석과 이상화는 소그룹의 명칭과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⁶ Neal F. McBrid, *소그룹 인도법* (서울: 네비게이토, 1997), 9.

특징들이 있다고 말한다.⁷

첫째, 소그룹은 ‘의도적인’ 모임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은 강요된 모임이 아니다. 새로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을 소개받은 사람이 자의로 결정하여 소그룹에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둘째, 소그룹은 ‘얼굴과 얼굴이 맞대고’ 모이는 모임이다.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것과 언어 외적인 것이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모든 의사소통의 90%는 언어 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 앉을 때 더욱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소그룹은 3명에서 12명이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모임의 인원이 열두 명이 넘게 되면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 넷째,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 에 모이는 모임이다. 다섯째, 소그룹은 ‘동일한 목적’ 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다. 여섯째, 소그룹은 ‘발견을 위한 모임이다. 일곱째, 소그룹은 ‘성장’ 을 위한 모임이다.

소그룹의 목적과 모임방식 및 형태의 공통점이 있음을 일곱가지를 통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소그룹의 전체 그룹을 향한 존재 목적이 누락되었다는 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지 않는 비대면 형태의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수정, 보완해서 소그룹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그룹은 의도적 모임이다. 소그룹에 속해 있는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모임이고 전체 그룹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협력하기 위한 모임이다. 교회에서 소그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제직회, 구역, 선교회, 성경공부모임 등 많은 형태가 있다. 이러한 교회 내 소그룹은 모두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신앙생활을 실천하며 교회에 안건 제시, 안건 통과 등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 따라서

⁷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3), 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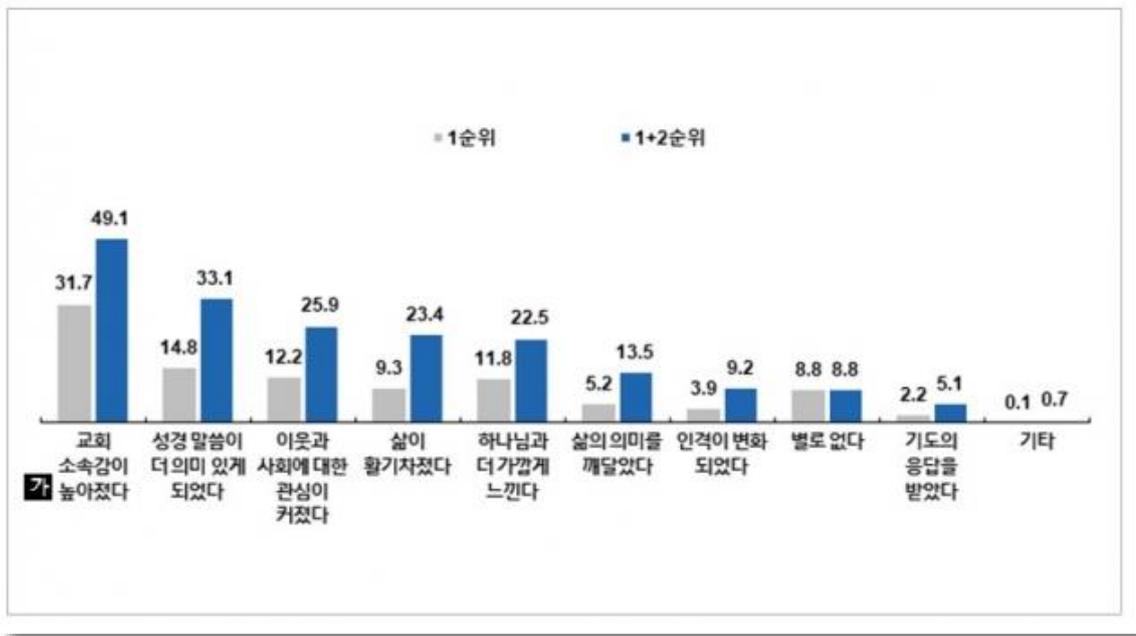
교회의 소그룹은 모두 개인과 교회의 발전을 위한 의도적 모임이다.

둘째, 소그룹은 관계적 모임이다. 소그룹은 대략 3-12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원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관계적 모임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문제해결이나 안건처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이루어가는데에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신앙 생활의 주제를 나누기 위하여 모인 소그룹일수록 적은 인원인 이유도 그것에 있다. 이성희는 “소그룹은 단순히 성경공부 모임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다”⁸ 라고 말한다. 소그룹에 속해 있는 인원끼리 결속력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도제목과 신앙의 내용을 나누고, 회복과 성장을 하는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그룹 내의 관계성 뿐 아니라 전체그룹과도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 전체 그룹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개인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다 알 수 없는 전체그룹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 창구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나 특정 직분자가 교인 한명한명의 신앙을 관리하고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또 소그룹에서는 분야를 나누어 연구하고 안건을 제시하여 교회의 발전을 함께 이뤄가는 상호보완의 성격이 바로 소그룹의 관계적 특징이다.

소그룹의 중요성

이와 같은 소그룹의 특징들을 볼 때, 소그룹은 개개인과 전체 그룹에 영향을 미친다. 2022년 4월 전국 기독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그룹 활동을 한 신앙인의 경우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소속감, 적극성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⁸ 이성희, *미래 목회 대예언* (서울: 도서출판 규장, 1998), 128.



<그림4> 소그룹 활동으로 인한 변화⁹

따라서 소그룹이 건강하고 발전하면 전체 그룹도 발전하고, 소그룹이 정체되어있으면 전체 그룹 역시 정체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 다워지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그룹의 중요성은 성서적, 목회적, 교회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성서적 근거

성경에서 소그룹의 형태가 몇가지 나타난다. 먼저 구약성경에서는 첫째, 공동체 운영을 조직적으로 잘 하기 위한 소그룹 형태가 있다.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운영한 것,¹⁰

⁹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42923&code=61221111&sid1=all> [2022년 12월 29일 최종접속]

¹⁰ 출18:20-22

이스라엘 지파별로 1명씩 리더 소그룹을 세워 가나안 정탐을 한 것¹¹, 전쟁을 위하여 소그룹을 형성한 것,¹² 재판을 위해 소그룹 리더들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한 것¹³ 등에서 볼 수 있다.

둘째, 교육을 위한 소그룹 형태가 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성경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소그룹을 형성한 것,¹⁴ 느헤미야가 바벨론 귀환 후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할 때 레위인들이 회중을 두루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¹⁵ 등이 있다.

또한, 신앙과 삶의 회복 등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소그룹도 있다. 엘리사 등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소그룹,¹⁶ 다윗과 뜻을 함께하는 모임¹⁷ 등이 있다.

신약성경에서도 다양한 소그룹 형태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나누시고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¹⁸ 전도를 위하여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파송하신 모습에서,¹⁹ 이후 예수님 부활 승천 후의 초대 교회의 출발 모습²⁰ 에서 소그룹 형태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소그룹은 저마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 속 소그룹들은 전체 그룹의 발전과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레위인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물을 잡고 집행하는 역할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²¹ 선지자

¹¹ 민13:1-16

¹² 삿5:1-11, 대상12:32

¹³ 역대하19:11

¹⁴ 역대하17:7-9

¹⁵ 느8:8-9

¹⁶ 왕하6:14-19

¹⁷ 삼상22:1-2, 삼상27:2

¹⁸ 마10:1-6, 막3:13-19, 눅6:12-16

¹⁹ 마10:1-4, 막3:16-18, 눅6:12-14, 행1:12-13

²⁰ 행1:12-13, 행2:46, 행6:3

²¹ 레9:1-24, 민18:1-7

그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길로 갈 때 돌아서고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²² 또한 예수님 승천 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지니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며, 예배와 말씀에 열심을 내어 초대교회의 발전과 신앙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²³

그러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적도 있는데 레위인들의 타락과 선지자 그룹의 타락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기도 했으며, 가나안 정탐의 리더 그룹의 신앙없음은 이스라엘 전체를 불안과 하나님 원망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 중에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신앙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소그룹이 성서에 나타나는데 제사장 그룹이다. 제사장들은 제사집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는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면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 하는 상황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야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만들어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다. 회당은 약 10명정도가 모여 율법을 강론하고 시편을 낭독했으며 성경필사, 성경읽기 등을 통해 신앙의 명맥을 이어갔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소그룹을 통해 여호와 신앙과 종교적 교육을 했으며, 바벨론 제국이 유대의 지도부를 완전히 와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만든 덕분에 페르시아 제국이 에스라에게 유대의 자치 지도부를 만들도록 허락했을 때에 에스라를 비롯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에 의해 선출되는 장로들을 어렵지 않게 조직할 수 있었다.²⁴ 이후 신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의 종교적 모임을 위한 장소이자 교육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회당 소그룹을 통하여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²² 사17:12-14, 사27:1-13, 사43:1-7, 렘4:1-4, 렘31:1-14, 렘33:1-26

²³ 행2:47, 행5:42

²⁴ 조병호, *통하는 사도행전 30년* (서울: 통독원, 2018). 19

등장하여 제사장 그룹 이후 신앙지도 소그룹의 명맥을 이어갔다. 이러한 명맥은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 예수님 시대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에 여러 신앙 지도자 소그룹이 형성 및 발전되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를 악랄하게 억압할 때 율법을 끝까지 지키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소그룹을 ‘하시딤’ 이라고 한다. 하시딤 소그룹은 유대 마키비 가문과 동맹하여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탄압과 억압에 대하여 대항하는 마키비 혁명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하시딤 소그룹에서 바리새파 라는 소그룹이 파생되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1세기에 바리새파는 약 6천명이 되었다고 한다.²⁵ 또다른 소그룹은 사두개파인데 이 그룹원들은 제사장 자손들 중에서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고 종교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의 후손으로서 한마디로 최고 권력의 종교지도자 소그룹이다. 이들은 로마 총독, 헤롯의 권력에 붙어 종교적 모양만 유지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종교 지도자 소그룹이었다. 또다른 소그룹은 에세네파인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부터 자극을 받아 나온 새로운 소그룹이다. 엄격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도피적이고 동굴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은둔형 신앙 소그룹이다. 마지막으로 열심당은 게릴라 형식으로 믿음을 과격한 행동에 담아 신앙을 지키며 수호하려는 소그룹이다. 예수님의 열두제자 중 가롯유다가 열심당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그룹들은 로마의 통치아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의 복음전도 활동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하여 제자 소그룹을 방해하고 억압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걸쳐 신앙지도자 소그룹들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종교지도자 소그룹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²⁵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267.

복음 전도 사역이 이루어져갔다. 특별히 바울을 중심으로한 복음전도자 소그룹은 이방민족에 복음이 증거되는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방전도에 대해서 할례를 주제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설전이 펼쳐졌고 이에 대해 바울 소그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차별없는 사랑을 주장하여 이방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²⁶ 또한 바울, 실라, 디모데와 함께한 전도 소그룹은 드로아로 들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에 복음을 전했고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에도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은 공동체 전체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그룹의 상황에 따라 전체 공동체에 회복과 발전을 일으켰느냐 아니면 혼란, 무질서, 갈등, 분열을 일으켰느냐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서 전체에 드러난 소그룹의 역할과 영향을 볼 때, 소그룹이 교회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학적 근거

교회는 신약에서 에클레시아(ecclesia)라는 말로 사용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믿고 예배하며 증거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교회가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미 교회의 신학적 정의에 그 중요성이 내포되어있다. 사도신경에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이며 라틴어 상크토룸(sanctorum)은 “거룩한 자들의 교제”와 “거룩한 것들에 있어서의 교제”를 모두 의미한다. 바르트는 성도의 교제로서 교회는 “상크티(sancti), 즉 성령에 의해 거룩한 자들의 교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그리스도인 전체의 교제” 이면서 “상크타(sancta), 즉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자로서 맺는 모든 거룩한 관계들,

²⁶ 행15:1-21

그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은사들, 그들이 부름을 받아 수행해야 할 거룩한 과제들,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룩한 지위, 그들이 행해야 할 거룩한 기능에 있어서의 교제” 라고 말한다.²⁷ 즉, 교회는 교제를 기초로한 소그룹이라고 정의한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교제,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과의 교제, 성령과의 전인격적인 교제로 이루어진 관계적 모임이라고 정의한다. Daniel L. Migliore는 신약교회의 이미지들을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다.²⁸

1.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people of God) 중심으로 묘사한다.
2.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백성(servant people)으로 묘사한다.
3. 그리스도의 몸(body of Christ)에 비유한다.
4. 성령의 공동체(community of the Spirit)로 묘사한다.

즉,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있는 하나의 공동체, 관계적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갈뻡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하며,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교회 자체만의 존재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안에 양육과 돌봄을 통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품을 떠나 사회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한다.²⁹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으로서 성도 사이의 연합과 교제가 중요함을 『제나바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교육 요강 및 신앙고백』(1537), 『제나바교회의 요리문답』(1541/1542)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특별히

²⁷ Daniel L. Migliore, *기독교조직신학 개론*, 신옥수, 백충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434.

²⁸ Ibid., 419-421.

²⁹ 최윤배, *갈뻡신학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384-385.

『기독교강요』)(1559)에서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이든지 나누는 원칙아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모였다”³⁰ 라는 공동체성을 강조했다.

이와같은 신학적 분류를 통해 볼 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고 공동체이며 서로 연합, 연결되어있는 공동체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전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작은 부분들부터 먼저 상호보완하고 작용 해야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도적, 관계적 특징을 지닌 소그룹이 존재 해야하며 소그룹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한다. 따라서 교회가 이미 그 존재의 형태나 목적에 소그룹의 특징과 형태가 포함되기 때문에 소그룹은 교회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목회적 근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³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목회 명령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목회를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목회는 교회 내적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다.(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둘째, 목회는 교회 외적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전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따라서 이러한 목회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들은 성경공부 소그룹, 기도 소그룹, 큐티 소그룹, 제자훈련 소그룹, 전도 소그룹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해 소그룹은 목회적으로 매우

³⁰ Ibid., 393-394.

³¹ 마28:19-20

중요한 기본 뼈대이며 본질이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았지만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삶을 함께 나누었고³² 그로인해 오히려 말씀이 더 왕성히 전파되었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목회적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³³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³⁴

신약성경은 교회를 몸과 지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목회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준다. 사람의 몸은 모든 기관들이 튼튼하고 균형이 맞아야 성장하고 발전하듯이 교회 역시 상호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됨’ ‘온전한 사람’ ‘몸과 마디’ ‘장성한 분량’ ‘연결’ ‘결합’ ‘자람’ ‘사랑안’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 서로 돌보며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교회는 목회적 성장을 이룬다.

교회 성장의 신학과 실천에 대한 신학자인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는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덟가지 질적 특성을 말한다.³⁵

³² 행2:42-47, 행4:32-37

³³ 엡4:13

³⁴ 엡4:16

³⁵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147-149.

1.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은 리더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에서부터 시작된다.
2.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만인제사장으로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라.
3. 양적 성장대신 질적 성장을 위해 열정적 영성을 키워라.
4. 성장하는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사역 각 분야에 기능적 조직이 생겨난다.
5. 영감 있는 예배는 교회에 가는 것을 즐겁게 만든다.
6. 예배에 참여하는 것 보다 전인적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7. 불신자의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라.
8.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위해 식사나 차 접대를 자주하라.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가 말한 여덟가지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질적 특징은 모두 소그룹과 연결되어있다. 소그룹이 목회적 뼈대를 이루지 않는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다. 더군다나 초대교회와 달리 오늘날 교회들은 전체 그룹 중심, 교회의 구조적 대형화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그룹은 교회의 목회적 사명을 다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별히 covid-19로 인해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크게 흔들렸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전체 그룹과 구조적 대형화에 매몰되었었는지,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완전히 드러났다. 교회에 모여 함께 만나고 예배하는 대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 지면서 개인이 개인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일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들은 on-line을 통하여 교인들의 신앙을 돌보는 목회를 실행했다. 물론 on-line을 통한 목회가 장단점이 있고 대면을 통한 소그룹 모임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on-line의 형태가 소그룹 모임을 오히려 더 손쉽게 모일 수 있게 하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결국 대면상황이든 비대면상황이든 소그룹은 교회에 있어서

목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목회적 요소이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소그룹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주제에 따라 혹은 연령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이름의 소그룹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이름을 가진 소그룹이 존재한다는 말은 소그룹이 그만큼 교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교회사적 근거

소그룹은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와 근대교회를 거치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매 시대마다 존재한 소그룹 형태는 소그룹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초대교회는 카타콤, 가정교회의 소그룹 형태를 띠며 유지해왔고 복음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후 로마의 박해가 사라지고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는 소그룹이 아닌 건물과 조직을 갖춘 형태가 되었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신앙의 자유는 얻었지만 오히려 교회에 기초가 흔들리는 일을 초래하게 되었다. 소그룹에서의 관계적, 유기적 형태에서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을 통해 권위주의적인 교회의 형태를 띄게 되었고, 교회의 조직화와 건물 중심의 모임이 되면서 모임의 적극성과 참여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벡햄(Bill Beckham)은 4세기 이후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³⁶

최후의 만찬(Lord' s Supper)의 변화: 공동체식사에서 의식으로

예배(Worship)의 변화: 참여에서 관람으로

³⁶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55.

증거(Witness)의 변화: 관계에서 판매활동으로

고백(Confession)의 변화: 소그룹 앞에서의 공개적인 고백에서 사적인 고백으로

교회생활(Body Life)의 변화: 삶의 방식에서 회원권으로

교인(Membership)의 변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성경공부(Bible Study)의 변화: 말씀의 준행자에서 말씀의 성취자로

또한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당시 교회 안과 밖으로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학적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고 교부들과 감독자들의 권력이 더 강화되면서 소그룹은 약화되었다. 어느 한 교설이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한 것인지, 아니면 이교적, 그리스적, 유대적 요소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인지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교회의 감독자이며 성령의 대리자인 사교(감독 Bishop)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³⁷ 처음에 사교는 장로와 구별되지 않았으나 차츰 사교는 장로들 가운데서 군주적 존재가 되었으며 이리하여 군주적 사교직이 생겨나게 되었다.³⁸

이후 교회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제도화되면서 세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교제와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수도원 운동이 주후 250년 이후 일어나게 되었다. 베네딕투스 수도원은 순번을 정해서 공평하게 일하고 기도하는 성무일과(成務日課)를 행했으며 교회와 세상을 개혁하려는 모습이 강했다.³⁹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해 교회와 수도원 개혁에 힘을 제공했으며 도미니쿠스 수도회는 공동체 교육, 교훈, 신학탐구등을 통하여 많은

³⁷ Paul Tillic, *그리스도교 사상사 I*, 송기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60.

³⁸ Ibid., 60.

³⁹ 박경수, *교회사 클래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04-105.

학자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도원 운동들은 조직화되고 건물화된 신앙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과 방향을 위하여 유기적, 관계적 삶을 산 소그룹 모임이었고 이로 인해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수도원 운동을 통한 소그룹 활동은 제도권 교회에 대한 개혁을 제시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했고, 교회사에 중요한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한 역할을 했으며, 힘든 자들을 돌보는 구빈원이기도 하였다.⁴⁰ 결국 소그룹인 수도원 운동으로 인해 성직자들의 부패와 문제점을 세상에 알려주고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성직자 우월주의와 면죄부 판매, 감독들의 권력 비대, 제의를 의식화하여 수입을 얻는 성직자들의 권력화 등이 중세시대 교회의 문제였고, 이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루터는 교회의 권력화와 세속화를 비판하며 교회의 사제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Coram Deo) 서 있으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만인제사장임을 교리를 주장했다. 기독교는 교회의 권력과 사제의 권위에서 탈피 해야하며 교육과 예배를 위해 가정에서 모이는 헌신된 신자들의 친밀한 교제모임인 소그룹 유형의 교회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⁴¹ 루터가 말한 소그룹 모임은 다섯가지 비전이 있었는데 첫째, 소규모 모임. 둘째, 자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셋째, 나눔을 위한 모임. 넷째, 봉사와 섬김의 모임. 다섯째,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를 모델로 한다.⁴² 따라서 종교개혁 시대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경건주의 운동에서는 특별히 독일의 필립

⁴⁰ Ibid., 114.

⁴¹ 김영태, “소그룹 목회의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성장학회* 7(2013), 23

⁴²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72.

슈페너(Philipp J. Spener, 1635-1705)가 경건모임(collegium pietatis)을 조직하여 소그룹을 지향했으며, 니콜라우스 친젠도르프(Nikolaus von Zinzendorf, 1700-1760)는 고향을 떠난 모라비아 교도들(모라비아에서 후스파 운동을 일으킨 보헤미아 형제단의 후예들)과 함께 ‘헤른후트’ (Hermhoter)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이어갔다.⁴³ 이러한 공동체 소그룹 체제는 모라비안 교회의 부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선교와 전도에도 중요한 일을 담당했다.

이후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는 모라비안 교회의 소그룹에 영감을 받고 속회모임(Class Meeting)을 시작하였는데, ‘신성클럽’ (Holy Club)을 결성하여 성서 읽기와 기도에 힘쓰며 사회약자들을 방문하여 돕는 소그룹 활동에 전념했다.⁴⁴ 이후 1989년 랄프 네이버의 소그룹(셀 교회) 지침서 초판이 출판되었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그룹 사역이 본격적으로 세계교회의 관심이 되었으며, ‘새들백교회’ 나 ‘월로우크릭교회’ 등이 소그룹 사역을 활발히 보여주었다.⁴⁵

이처럼 교회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박해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유지한 것은 소그룹 활동이었고, 이후 교회의 제도화, 성직자의 권력화, 예배의 제의화 등의 교회의 신앙적 본질을 유지한 것도 소그룹 운동이었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해준 중요한 요소였으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기본 뼈대였다.

한국교회 역시 소그룹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디(R.A Hardie, 1865-1949)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중이던 여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원산 지역의 부흥과

⁴³ 박경수, *교회사 클래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67-268.

⁴⁴ Ibid., 269.

⁴⁵ 오현철, “예수생명이 약동하는 공동체, 소그룹.”, *성경과 신학* 65 (2013), 194.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시초가 되었다.⁴⁶ 이후 평양에서 권찰제도가 사무엘 마펫(Samuel A. Maffett, 1864-1939) 선교사 등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제도를 통해 한국교회의 소그룹 형태의 발전과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소그룹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의 대형화,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소그룹 사역은 교회에서 점점 힘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중세시대 종교개혁 때처럼 한국교회의 구조적, 외형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소그룹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캠퍼스를 중심으로 교회 밖 선교단체들에서 소그룹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성경공부와 예배와 찬양의 활성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교회 밖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와 신앙적 도전에 교회들은 다시 소그룹 사역에 관심을 돌렸는데, 그로 인해 셀교회, 목장교회, 큐티, 두 날개, G12, 알파, 제자훈련 등의 소그룹 사역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 교회들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소그룹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본질에 대해 매 시대마다 그리고 유럽과 한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그룹의 유형

현재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소그룹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교회 소그룹 유형은 구역제도이다. 박용규는 평양대부흥운동을 계기로 대집회 뿐 아니라 소그룹모임이 많이 발생되었고 이것이 구역제도와 유사하다고 말한다.⁴⁷ 구역제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의해서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며 한국교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서

⁴⁶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116.

⁴⁷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51.

교회들의 부흥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후 교회 밖 선교단체들에서 소그룹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왔으며 이에 다양한 소그룹 형태인 권찰, 교구, 목장, 순, 셀, 두날개, 일대일, G12 등이 지속되어왔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소그룹을 통해 성장,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온 소그룹은 교회의 5대 사명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예배(λ ε ι τ ο υ ρ υ ι α)

예배 소그룹은 대표적으로 구역모임이 있다. 구역, 순, 셀, 목장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 예배를 위한 소그룹이다. 이러한 소그룹은 리더를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며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신앙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모임의 형식은 교회 예배의 형식과 비슷하며 성경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시 다른 소그룹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성경을 설교로 나누는 것이 아닌 소그룹 구성원의 목상을 나누는 형식의 경우 큐티 소그룹, 성경읽기 소그룹이 되고, 기도가 주된 목적이 되는 경우는 중보기도 모임 등의 기도모임이 되기도 한다.

전도(κ ή ρ υ γ μ α)

한국교회는 전도 소그룹에 대해서 많은 책들과 세미나가 이루어져왔다. 파라솔 전도, 전도폭발, 단계별 전도, 관계전도, 사영리 등 다양한 이름과 방법이 있지만 모두 전도를 위한 소그룹이다. 3명에서 10명정도로 구성되어서 특정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며, 이러한 전도 소그룹의 활동을 통해 ‘새생명잔치’ ‘전도축제’ 등의 교회 부흥을 위한 행사와 연계한다.

봉사(δ ι α κ ο ν ι α)

봉사를 위한 소그룹은 교회의 조직적 운영을 위해 활동한다. 대부분의 제직회 소그룹이 그러하며, 교회의 운영과 안전처리, 목적과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의 봉사 소그룹도 있다. 교회 밖 구제를 담당하는 소그룹이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구제물품 전달, 구호활동, 급식봉사, 자연재해 구제활동, 농촌 봉사 등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봉사 소그룹을 구성하기도 한다.

친교(κ ο ι ν ω ν ι α)

교회 안 친교 소그룹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교회에 있는 친교 소그룹은 선교회, 전도회라는 이름의 자치회이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남녀선교회, 남녀전도회 소그룹이 구성되어있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성되어서 신앙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로의 신앙을 유기적으로 돌본다. 또한 이러한 소그룹은 친교를 위해 구성되어있지만 친교를 시작으로 교회 내 봉사, 행사 진행, 그리고 교회 밖 구제와 선교 등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 교회 밖에서의 취미 활동 등을 교회 안에서 함께 공유함으로 교회 안과 밖의 신앙적 삶을 함께 이루어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한 방편으로도 친교 소그룹의 역할을 확장되기도 한다.

교육(δ ι δ α χ η)

교육을 주제로 한 소그룹은 대표적으로 성경공부 소그룹, 제자훈련 소그룹인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러한 유형의 소그룹으로 성장해 왔고 현재도 이러한 유형들을 가지고 있다. 성경공부 소그룹으로는 성경 통독 및 연구, 성경 주제별 연구, 교리 공부 등이 있으며 제자훈련 소그룹은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시스템이 있다. 옥한흠은 평신도의 제자화를 목표로 소그룹활동에

주력했으며 이를 통해 사랑의 교회가 성장했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옥한흠은 신학생 시절 한스 쾅(Hans Küng)에게 영향을 받아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한다는 교회론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따라서 평신도나 성직자 구분 없이 모두 사도성을 계승해야하며 이것을 위하여 제자훈련 목회에 집중했고 이미 교회 뿐 아니라 유학이전부터 캠퍼스, 직장 등을 대상으로도 제자훈련 목회에 집중했다.⁴⁸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교육 소그룹이 아닌 훈련을 통한 평신도 1명이 다른 평신도 1명을 양육하고 돌보며 제자화 시키는 소그룹 교육이 활발했으며 이러한 소그룹은 5-10명이 모이는 기존 소그룹 형태가 아닌 일대일을 통한 소그룹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있었고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많은 한국교회들은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등 여러형태의 교육소그룹을 통하여 전체 교회의 뼈대를 형성해 갔고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갔다.

한국 교회 소그룹의 한계

소그룹은 교회의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그룹이 한국 교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왔지만 더 이상 소그룹이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그룹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도 교회가 성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목회자의 뛰어난 영적 리더쉽과 탁월한 설교는 소그룹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교회의 전체 성장은 이루어진다. 한국 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능력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도를 하며 수평 이동도 이루어진다. 소그룹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몇 십년 전과 다르지 않는 패턴과

⁴⁸ 박응규, “은보 옥한흠 목사의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훈련목회.”, *성경과 신학* 65 (2013), 122-134.

내용의 소그룹이 여전히 유지 되고 있지만 담임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이 개인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소그룹 리더의 한계이다. 소그룹은 관계적 모임이지만 결국 소그룹의 중심이 되는 리더가 있어야 하며 이것은 다시 리더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한계가 있다. 리더의 진행에 따른 일방적 모임이 되기도 하며,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서 리더의 역할을 부담스러워 서로 하지 않으려 하는 리더 수급의 한계가 있다. 또한 COVID-19와 같이 비대면 시대에도 모든 역량이 더욱 리더에게 집중되고, 리더의 역량에 따라 소그룹의 존속과 성장이 결정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각자의 교회에 맞는 소그룹 찾기의 한계이다.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소그룹을 통해 부흥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들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교회가 정체된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어느 소그룹 형태가 몇몇 교회들의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면 무조건적 수용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특별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새로운 소그룹을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토양을 살피지 않고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해 오히려 정체와 혼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마다 교회에 맞는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소그룹을 찾고 적용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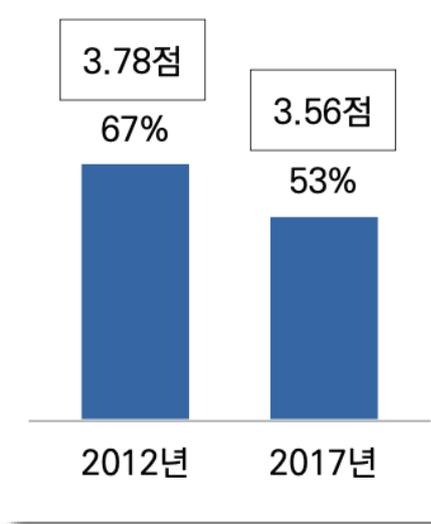
넷째로, 소그룹의 지속성이다. 교회에 맞는 소그룹을 정착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오랜시간 동안 참여하고 동참하면 교회의 뼈대를 이루지만, 이것이 유지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한국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이 교회 소그룹의 유지와 변경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담임목사의 중심 철학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그룹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그로인해 다시 시작하고 정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의 변질위험이다. 소그룹은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단순히 성장만 부추기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한 지나친 교회성장행사, 교회의 운영을 위한 동력과 도구로의 소그룹 사용, 교회 운영을 위한 다단계식 소그룹 형태 등은 소그룹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 교회 소그룹의 문제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그룹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12년에서 2017년까지 14%나 만족도가 떨어졌다.⁴⁹



<그림5> 소그룹의 체계적 활동 만족도 (교회출석자, 긍정률, 5점 만점 평균)

⁴⁹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1&page=2 [2022년 12월 10일 취
종접속]

소그룹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그동안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준 목회 요소들이 오히려 소그룹 발전을 저해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교회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성장해 왔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나 부흥회를 통한 강한 개인의 영적 체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만 몰두하게 한다. 부흥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수직적 관계는 기여하였으나 교인들끼리의 수평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부정적이다.⁵⁰ 또한 한국 교회의 부흥은 탁월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에만 몰두하게 되고 소그룹을 통한 교제와 나눔은 신앙 성장에 중요 요소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따라서 소그룹은 현상 유지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형식만 갖추고 있다.

둘째, 소그룹의 제도화이다. 한국 교회는 소위 말하는 구역 소그룹을 통해 부흥했다. 그러나 크게 성장해버린 중형, 대형 교회들은 구역 소그룹이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조직과 행정을 위한 소그룹의 기능만 하게 되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대중 집회가 많이 있다. 일주일에 10회 이상의 대중집회에만 참석하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워진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역 소그룹은 더 이상 구역 모임은 어렵고, 행정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조직에 불과하며 대중 집회나 행사를 위해 동원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셋째, 교재를 통한 소그룹이다.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 소그룹 발전을 일으킨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의 일대일 제자 양육 시스템은 많은 교회들이 접목했고 시도를 했다. 사랑의 교회는 일대일 제자 양육 교재를 만들고,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많은 교회에서 세미나를 듣고 이 교재로 소그룹을

⁵⁰ 김한욱,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신학과 실천* 12 (2007), 25.

운영했다. 또한 유기성 목사의 성경공부 교재, 이재철 목사의 성경공부 교재, 새신자 양육 교재 등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목회자들의 교재들을 많은 교회들이 사용했다. 그러나 각자 교회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유명한 교재를 사용하는 것에 치중하며 주입식, 교육식 소그룹 모임이 되었다. 결국 개 교회 담임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교재 중심의 소그룹은 교회의 목회 방향과 소그룹이 따로 움직이게 된다.

종합하면 현재 대부분의 소그룹은 구성원들간의 소통과 참여, 연결보다는 리더에 의한 수직적인 모임이며 교재를 통한 수동적, 교리적, 기계적, 조직화된 모임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 소그룹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며, 교리적이지 않고 감각을 활용 해야하며, 기계적이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소그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제 III 장

EPIC의 이해

EPIC 이론

EPIC이란 레너드 스윗 박사⁵¹가 주장한 이론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춰 교회가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한 내용이다. EPIC의 핵심 요소는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s), 관계(Connection) 이다. 레너드 스윗박사는 EPIC을 스타벅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첫째로, 스타벅스는 상품을 새롭게 만들거나 획기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상품은 흔히 보는 커피이고 대단히 뛰어나고 특별한 품질의 커피도 아니다. 즉 상품을 통한 매출 증가나 인지도 상승이 아니라 경험(Experience)을 판매하기 때문에 스타벅스만의 인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가짜나 피상성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다.⁵² 사람들은 가짜나 피상성은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의 경험을 원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원한다.(Participation) 그런 면에서 스타벅스는 이미지 브랜딩을 통해 스타벅스만의 고유성과 진정성을 판매한다는 것이다.(Images)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⁵¹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는 미국의 저자, 설교자, 학자다. 드루대학교에서 스텐리 존스 교수 직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있다.

⁵²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6.

진정성을 이미지화 함으로 어디서든 찾아가고 싶고 경험하고 싶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스타벅스는 커피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이다.(Connection) 스타벅스 매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신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한 공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레너드 스윗은 스타벅스를 통해 EPIC의 요소를 발견하고 교회 역시 EPIC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믿음이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믿음은 일련의 신념이나 생활방식이 아니라 호흡이요 맥박이라고 말한다.⁵³ 교회가 믿음을 올바르게 갖고 복음을 잘 전하려면 새로운 문화에 맞춰서 교회의 모든 요소가 EPIC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에픽신앙을 통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에 레너드 스윗은 EPIC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PIC 사회

현대사회는 다양한 말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근대 산업사회, 평균중말 사회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현대 사회를 EPIC 사회, EPIC 시대로 보고자 한다. 이론보다는 감각에 따른 습득과 이해를 중요시하고, 서로 간의 단절과 분리 속에서도 본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시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구매하기 원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사회, 경제, 교육, 예술 분야에 적용되어서 다시 EPIC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즉, 현대 사회는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중요시하는 EPIC 사회이다.

⁵³ Ibid., 37.

경험(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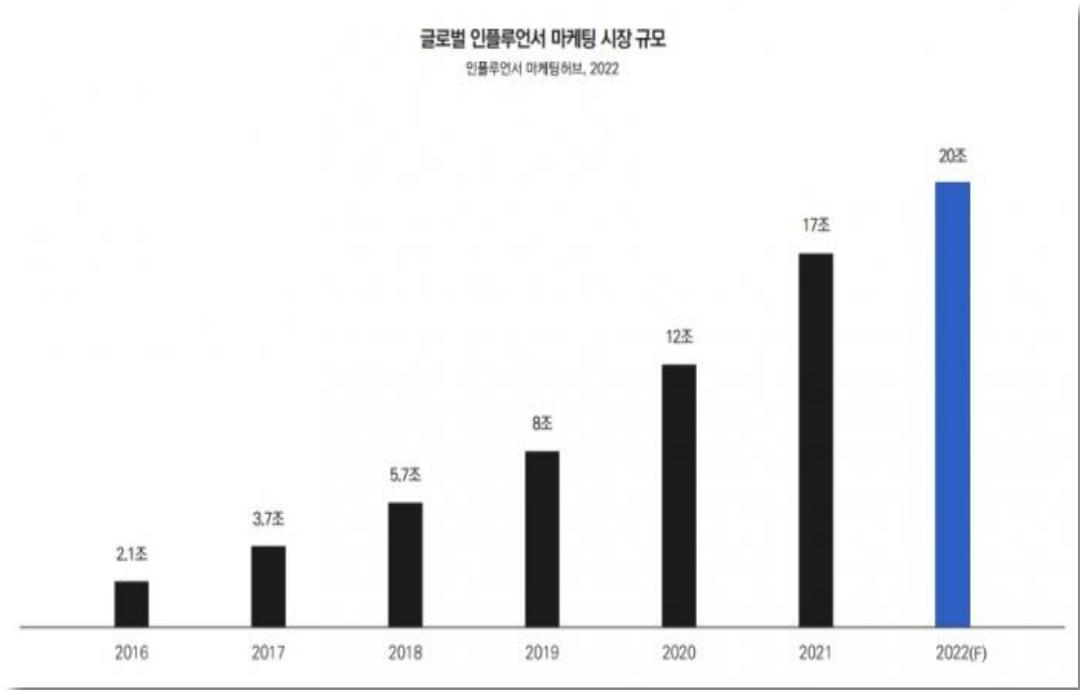
레너드 스위트는 포스트 모던인들의 특징 역시 경험을 중요시 한다고 말한다.

포스트 모던인들은 경험에 늘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적 요소를 과소 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경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험이 폭발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정보가 경험으로 포장되어 있기를 바란다.⁵⁴

현 시대의 사람들은 이론과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기 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보다 직접적이고 손 쉽고 받아들이기 수월하기 때문에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경험은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으로 SNS를 통해 여행, 교육, 소비 등의 경험을 한다. SNS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한 경험을 SNS에 업로드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이론과 단순정보만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소비를 진행한다. 이러한 SNS를 통해 경험을 판매하는 사용자들을 지칭해서 ‘인플루언서’ 라는 용어와 직종까지 탄생했다.⁵⁵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구매하게 되었고,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둘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연결 직업군까지 생겨났다.

⁵⁴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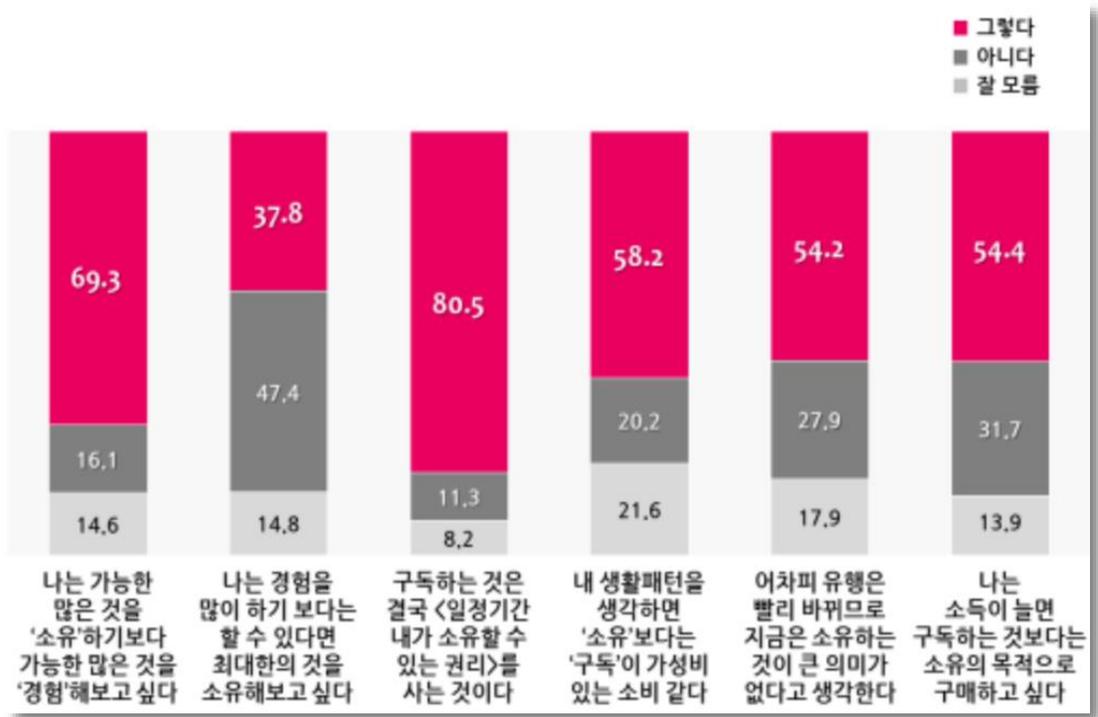
⁵⁵ 인플루언서는 영향력(Influence)을 뜻하는 단어에 접미사인 -er이 붙은 것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림6>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⁵⁶

코로나 시대에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예전처럼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경제에서 이제는 경험을 구매하는 ‘경험소비’ ‘경험경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SNS를 통해 다양한 채널로 정보와 가치를 확인하고 그 경험으로 상품을 구매한다. 탐색, 사용, 공유, 폐기 등 다양한 직접적, 간접적 경험들이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는지가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⁵⁶ <https://www.geniepa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50> [2022년 12월 21일 최종접속]

<그림 7>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 평가(단위: %)⁵⁷



또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처럼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D, VAR를 통해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로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레너드 스윗은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 한잔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한잔을 통한 체험을 판매하듯이 교회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들을 생산해 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꼭 빼닮은 사람을 부르셨고, 그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체험이며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지각 및 오감을 활용하여 수용한 내용을 다루는 방식이며, 출처를 형성해 가는 과정, 그리스도로 성장해

⁵⁷ <https://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33> [2022년 12월 23일 최종접속]

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⁵⁸ 레너드 스윗은 경험이 우리 신앙과 교회에도 아주 중요함을 말하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반문한다.⁵⁹

기독교 신앙은 잘 짜인 사고 실험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삶을 추구한다. 교회의 신념이나 공식적인 신앙 고백 말고, 구체화된 실천과 다감각적인 경험을 개발하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여(Participation)

레너드 스윗은 앞서 말한 경험은 그 혼자가 아니라 참여(Participation)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체험에는 목격자가 필요하다. 목격자가 없다면, 여기 해봄직한 체험이 있노라고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체험에서 목격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참가자들이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진정한 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체험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요한다. 우리를 한눈에 사로잡고는 “뛰어들라”고 유혹하는 체험은 그래서 꽤나 강력하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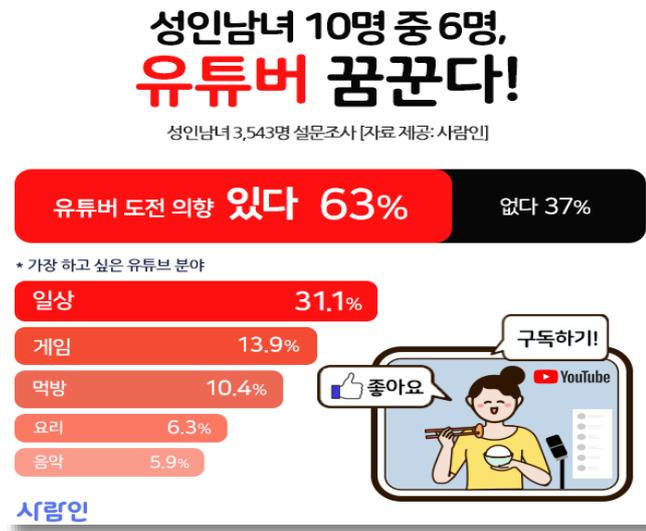
이러한 참여의 특징은 경험의 특성과 연결되어있음을 많이 볼 수 있다. TV에서 경연 프로그램은 더 이상 시청자로서가 아니라 제작자와 심사위원, 판정단으로 경험하고 참여하도록 대중들을 부르고 있다. 또한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콘텐츠 제작 경험에 참여하도록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대중들이 1인 방송인(유튜버)를 꿈꾸고 있고 실제로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광고수익 유튜브 채널은 인구 529명당 1개꼴로

⁵⁸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72-77

⁵⁹ Ibid., 79-80.

⁶⁰ Ibid., 89.

집계되었다고 한다.⁶¹



<그림8> 유튜버 도전의향 조사 설문결과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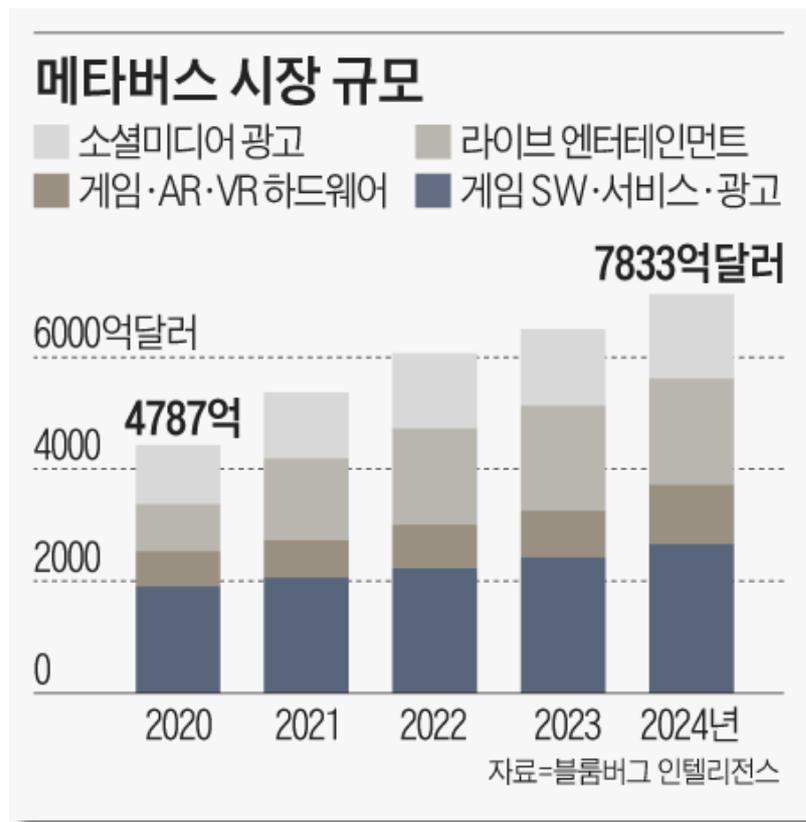
<그림9> 국내 구독자수 기준 유튜브 채널수⁶³

⁶¹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311274021985> [2022년 12월 29일 최종접속]

⁶²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9> [2022년 12월 29일 최종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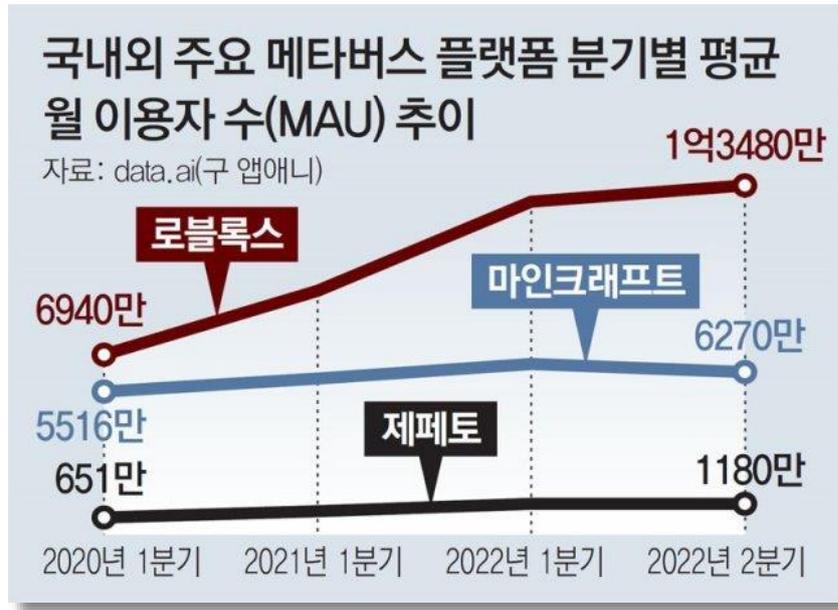
⁶³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216122528500> [2022년 12월 29일 최종접속]

이러한 참여의 특징 역시 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를 맞이하면서 다양하게 드러났다. 현대 자동차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상공간에서 자동차를 시승할 수 있도록 참여자를 모집했고, SM엔터테인먼트는 아바타를 활용한 메타버스 공연을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채용설명회를 메타버스로 진행했고 호두랩스는 메타버스 게임에 어학연수를 접목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시설공단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초중고생을 위한 안전교육 뿐 아니라, 따릉이 자전거 교육도 개설했다. 운동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각자의 방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함께 참여해서 운동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한다.



<그림 10> 메타버스 시장 규모⁶⁴

⁶⁴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2/16/3CEEIUTINJGMBEWEXOP5M75JQJ/> [2022년 12월 15일 최종접속]



<그림11> 메타버스 이용자 현황⁶⁵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 일방적인 방식과 시스템이 아니라 참여와 경험을 원하고, 수동적이고 대리자의 자리가 아니라 선택과 참여의 자리를 원한다. 따라서 레너드 스윗은 대리문화와 참여문화를 비교했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⁶⁶

대리문화	참여문화
지침과 규정을 집행한다.	스스로 결정 내리기 원하며 선택을 하고 싶어한다.

⁶⁵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828/115185994/1> (2022년 12월 29일 접속)

⁶⁶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100

보상받을 수 있는 행동만 한다.	공공의 선을 위해 희생한다.
사회 봉사하는 일에 개인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 조직은 자발적이며 자신의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도 참여와 경험이 함께하는 참여문화로 변화되어야 함을 레너드 스위트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은 참여의 사건이며,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 창조주와 짝을 이루어 그분의 사명을 실천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⁶⁷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창조 사역에 참여해야하며, 사명적이란 말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 삶과 공동체의 경험 속에 구체화하는 것을 가리킨다.⁶⁸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분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배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경험을 창조하고 다듬는 데 기여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⁶⁹

이미지(Images)

이미지가 빠진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미지 자체만 하더라도 과거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용도를 넘어 문화가 되었고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은 엄청나다. 레너드 스위트는 스타벅스

⁶⁷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11-112

⁶⁸ Ibid., 112.

⁶⁹ Ibid., 114-124.

역시 이미지를 통해서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세계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스타벅스의 이미지는 똑같으며, 스타벅스의 특성을 담은 이미지를 사람들의 뇌에 심어준다고 보았다.⁷⁰ 기업이 이미지를 통해 기업과 상품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내세우고, 이미지를 통해 브랜딩을 함으로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예전에 활발했던 상업지구, 변화가였지만 시대와 트렌드가 바뀌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이 찾아오지 않고 상권이 무너진 곳들이 있다. 이러한 곳들을 추억의 장소로 간판의 폰트를 바꾸고, 건물 디자인을 바꾸고, 거리와 주변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간 디자인이라는 차원에서 기업의 가치를 브랜딩한 경우도 있는데, 더 현대 서울이다. 기존 백화점의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 문화와 여가를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 이미지를 바꾸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특별히 건물 전체에 리테일 테라피(Retail Therapy)⁷¹를 접목해서 참여와 경험을 이미지로 확실히 이끌었다. 더현대서울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김연희 선임은 ‘리테일 테라피를 통해 소비자들이 쇼핑을 경험하면서 힐링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재방문 하게 하는 목적을 두었고, 전체 면적의 절반을 직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고객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전환했다’⁷² 고 공간 이미지 목적을 말했다.

⁷⁰ Ibid., 141

⁷¹ 유통 공간을 뜻하는 리테일(Retail)과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Therapy)를 합친 신조어로, 쇼핑 경험을 통해 소비자에게 치유를 준다는 의미. 증권용어사전

⁷² <https://www.brand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1> [2022년 12월 1일 최종접속]



<그림12> 더 현대 서울 리테일 테라피⁷³

이미지가 정보를 전달하는 기본 역할에 있어서도 좀 더 발전되었다. 인포그래픽⁷⁴은 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론과 논리가 아닌 이미지가 지식과 정보전달에 큰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⁷³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247069g> [2022년 12월 1일 최종접속]

⁷⁴ 정보를 나타내는 Information과 그래픽(Graphic)의 합성어이다. 뉴스 그래픽(News Graphics)이라 하기도 한다.



<그림13> 인포그래픽 활용사례⁷⁵

따라서 이미지는 복음을 전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더 이상 교리와 관습,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복음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브랜딩해야 한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자 로고스이며, 우리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⁷⁶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이미지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⁷⁵ <https://ditoday.com/%EC%9D%B8%ED%8F%AC%EA%B7%B8%EB%9E%98%ED%94%BD-%ED%99%9C%EC%9A%A9-%EC%82%AC%EB%A1%80/> [2022년 11월 30일 최종접속]

⁷⁶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53

생생한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게 만드는 진정한 체험을 만들어야 한다.⁷⁷

관계(Connection)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경험, 참여, 이미지는 모두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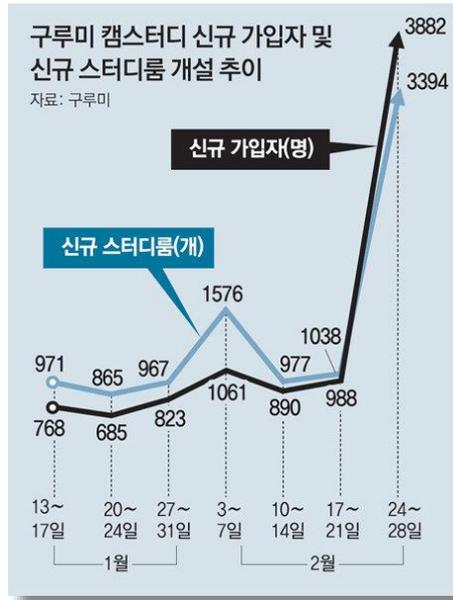
경험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우리가 그 경험에 참여할 때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우리가 참여할 때 그 경험은 중요해지고, 그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이미지들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에픽 인생의 네 번째 차원, 즉 관계로 이끄는 일종의 서문 역할을 한다.⁷⁸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공공의 프라이버시’, ‘제3의 장소’를 제공한다.⁷⁹ 각자가 분리되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 안에 참여함으로 관계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적 특징은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해당된다. 1인 방송인이 혼자 공부하는 영상을 송출하면 그 영상을 보고 시청자들은 각자의 장소에서 같이 공부에 참여하는 ‘스터디 캠’이라는 콘텐츠에서 볼 수 있다.

⁷⁷ Ibid., 149.

⁷⁸ Ibid., 171.

⁷⁹ Ibid., 174-178.



<그림14> 스튜디오 캠프 개설 추이⁸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관계성을 판매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교회는 더 이상 관계적인 장소가 아니라 명제적인 장소로 변해 버렸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진리를 확신하기 위해서, 또는 이미 확신에 이른 사람들이 많다면 자신의 신앙과 종교적인 확신을 강단에서 재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간다.”⁸¹ 라고 말한다. 따라서 더 이상 교리와 개인신앙, 수동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에만 몰두하지 말고 관계를 통한 열정적인 EPIC신앙을 이뤄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거룩함이 히브리어 어근에서 보면 특별한 목적이나 사용을 위해 무언가를 따로 떼어놓는 행위를 암시하지만, 예레미야의 소명으로 들어보면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 하나님만을 위해 예비된 사람인 셈이기에 성경에 나타난

⁸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302/99972444/1> [2022년 11월 30일 최종 접속]

⁸¹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75.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몸과 정신과 영혼을 연결시키는 관계적 명령이다 고 말한다.⁸² 거룩이 개인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신앙이라는 것이다. 교회가 개인의 신념과 믿음을 다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회가 사회와의 관계, 연결하는데 힘쓰는 것 역시 EPIC 신앙이다. 문을 걸어 잠궈놓고 거룩한 장소로 단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로 개방하여 복음을 경험하고 교회의 이미지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이 이미 관계적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이라는 관계를 맺기 위해 오셨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함께 머무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을 했다. 직접 찾아갔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질문을 했으며 들으셨다.

지금까지 EPIC 이론과 그것이 드러나 있는 EPIC 시대를 살펴 보았다. 세상이 교회 보다 더 흥미롭고 발전적인 요소는 모두 EPIC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더 복음이 흥미로울 수 있는 길 역시 EPIC이다. 또한 EPIC은 교회와 세상의 단절이 아닌 교회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며 세상 속에서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⁸² Ibid., 198.

제 IV 장

EPIC 소그룹 적용

EPIC 소그룹

레너드 스윗은 유럽과 미국을 통해 본 교회의 흐름을 네 단계로 말한다. 첫째 선교하는 교회(Mission Church), 둘째 목회적 교회(Ministry Church), 셋째 현상유지적 교회(Maintenance Church), 넷째 박물관 교회(Museum Church)이다. 시대가 흐를수록 교회가 수동적이며 참여와 관계성이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는 것인데, 이것은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적 소그룹, 참여와 관계가 없는 조직적 소그룹, 박물관 소그룹의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교회, 미래의 소그룹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래교회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⁸³ 그래서 김영래는 이렇게 주장한다.

“미래와 교육과 목회는 창조적 역동성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 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래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로 재설정되어야 하며, 교육은 학습의 기술이 아니라 실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재정향 되어야 한다.”⁸⁴

⁸³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0), 25.

⁸⁴ Ibid., 25.

그러므로 EPIC을 적용한 EPIC 소그룹 모델은 기존 교회 소그룹의 한계를 벗어나서 단순히 이론과 교리, 수동적 학습, 개인만의 성장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참여함으로 개인과 교회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기초이다.

EPIC 소그룹 모델

본 적용은 가능제일교회 청년부에서 5년간 진행한 소그룹 활동을 EPIC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EPIC 소그룹 모델로 제시하려고 한다. 가능제일교회는 대한민국 의정부시에 위치 한 300명의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이며, 청년부는 약 30-4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목장 소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특성에 따라 선교 소그룹, 토론 소그룹, 문화 소그룹, 봉사 소그룹, 큐티 소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소그룹의 특징이 기존의 전통적인 소그룹과는 다르고, 그로 인해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청년부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기에 EPIC 관점으로 정리하여 소그룹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EPIC 소그룹: 경험(Experience)

가능제일교회 청년부는 7-8월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사역을 한다. 기존 단기 선교사역은 현지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청소, 건물 짓기, 육체적 봉사 등의 사역을 하지만,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는 필리핀 현지인들의 삶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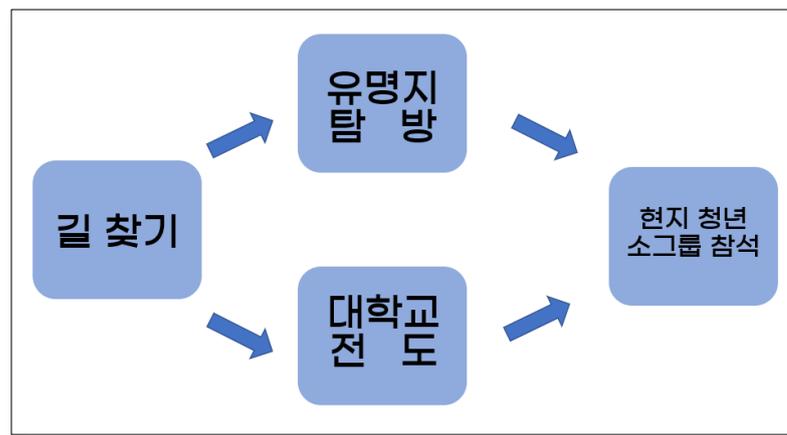
경험하는 단기선교

대부분 교회들의 해외 단기 선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복음전도, 둘째는 관광이다. 복음전도는 대부분 여름 성경학교 사역, 워십댄스와

찬양 등의 공연이다. 혹은 손 씻어 주기, 풍선 붙여주기, 운동같이 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또 관광은 현지 유명지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현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현지인들의 삶의 풍경들을 봄으로써 그 나라의 상황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단기 선교는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비 한 사역을 시행하는 것에 모든 일정과 목적이 있다.

가능제일교회 청년부에서 진행한 단기 선교는 복음전도와 관광을 하나로 묶어서 현지인의 입장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선교 소그룹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5> 필리핀 단기선교 정리



사역 내용

기존 단기 선교는 준비 된 운송 수단으로만 이동을 하는 형태였으나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은 현지 운송 수단을 각 소그룹이 직접 선택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현지 교통수단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노선인지를 확인하고, 현지 화폐로 돈을 지불하고, 목적지를 말하고 내려서 직접 현지인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부록 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먼 거리를 직접 이동하여 도착한 곳에서 물건 구입, 현지 시장 체험, 타종교의 영향이 많이

깃들여져있는 장소 방문 등을 하여서 현지인들의 삶과 종교를 체험한다.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목적지는 첫째 현지 유명지이다. 성당, 박물관, 쇼핑몰 등을 찾아가서 그곳의 문화를 확인하고 경험한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유명지에서 준비한 전도지를 전해주며 전도를 한다. 둘째는 대학교 앞으로 가서 전도를 한다. 같은 나이대의 현지인 청년들에게 기독교를 전했을 때 보이는 반응들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기독교가 어느 정도의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체험한다.





<그림16> 현지 교통수단 이용 - 전도 및 유명지 탐방

오전과 오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현지인들의 삶에 대해서 경험했다면 저녁에는 현지 교회 청년 소그룹에 참석해서 함께 토론을 한다. 현지인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을 하는데 그 모임에 4명씩 함께 참여한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지인 청년들의 고민과 생각이 무엇인지,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들음으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공유한다.



<그림17> 현지 청년들과 소그룹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 사역이다. 많은 단기 선교 소그룹이 다녀온 것으로 끝이 나고, 다녀온 소그룹만의 경험이 형성되어서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과의 분리가 발생된다. 이를 위해서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단기선교팀은 선교를 통해 경험하고 보았고 느꼈던 내용들을 선교책자로 정리해서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부록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역자들의 느낀점과 개선점을 비롯해서 선교출발 전부터 다녀온 후까지 느낀 소감문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선교와 현지인들을 바라보았던 시선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준비사항

이를 위해서 선교 소그룹은 출발 전 특별한 준비를 하는데, 전도 책자 내용을 미리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아서 직접 제작을 한다. 형식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언어와 상황에 맞게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로 전도를 할지 직접 다시 문구를 작성한다. 직접 작성한 문구들을 가지고 그룹별로 모여 연습을 한다. 매주 하나의 문장씩을 현지어로 작성하고 암기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준비는 선교 소그룹만 하지 않는다. 주일 소그룹에는 선교를 가는 청년들과 가지 않는 청년들이 함께 구성되어있는데, 선교를 가는 청년들이 선교를 가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연습한다. 그리고 함께 전도 문구를 작성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눔으로서 선교를 함께 공유한다.

종합하면, EPIC 소그룹으로서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 소그룹은 이방인이 현지에 와서 준비된 프로그램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의 삶의 환경에 참여하고 생각을 나누며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교책자를 통해서 그 경험이 선교 소그룹만의 경험이 아니라 가지 못한 다른 청년들과 교인들도 함께 선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EPIC 소그룹이라 할 수 있다.

EPIC 소그룹: 참여(Participation)

가능제일교회 청년부는 문화로 함께 한다. 교회 안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 문화 콘텐츠를 나눔으로써 서로의 삶과 생각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문화 토론과 월간 청년이다.

참여하는 문화토론, 월간청년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전부라고 하고, 의심이 들어도 믿어야 한다는 신념의 교육을 받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문화와 신앙의 부딪힘, 갈등에 대해서 청년들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문화 토론이다. 평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 후 예배 때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지만 정기적으로 문화 토론을 소그룹 모임 때 한다. 이 토론을 통해서 믿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청년들도 생각을 나누는 것에 참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과 삶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에 문화 토론의 목적이 있다.

월간 청년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 매달 선정되는 청년의 삶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서로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함께 공유하며 참여하는 소통사역이다.

사역내용 - 문화토론

주제는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고, 일년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오랜 시간 나눔이 필요한 주제는 수련회 때 한다. 주제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의 관점과 부딪히는 술, 동거, 동성애를 비롯해서 통일, 사형제도 등 세상을 바라보는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방법은 부록 3과 같다.





<그림18> 문화 토론

준비사항

문화토론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용	시기	대상자
주제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3-4주 전	전체
주제선정 공지	2-3주 전	전체
사전 모임 - 토론 준비	1주 전	소그룹 리더
사후 모임 - 토론 내용정리	당일	소그룹 리더

<표1> 문화토론 계획

이를 통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신앙과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다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 토론의 마지막은 소그룹 내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완전한 결론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결론을 내림으로써 신앙적 고민들을 대하는 방법도 서로 공유한다.

사역내용 - 월간청년

월간청년은 청년부에서 발행되는 월간지이다. 월간지를 제작하는 소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전체 청년 그룹의 의견과 관심을 반영해서 제작한다. 구성과 내용은 부록 4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부 소식, 문화 카테고리, 신앙 카테고리, 인터뷰로 이루어져있다.

문화 카테고리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내용들이다. 그 달 계절에 가기 좋은 명소, 동네에 맛있는 카페 소개, 영화 소개, 건강정보, 패션 등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주변 장소, 계절 관심사 등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결국에는 삶과 신앙을 나누는 경험에 참여하는 사역이다.

문화카테고리에 이어서 신앙카테고리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담당 목사가 짧게 답을 해주는 내용이다. 주제로는 ‘성악설이 맞나요, 성선설이 맞나요?’ ,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라고 외치는 것은 민폐가 아닌가요?’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보면서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할지 고민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청년을 선정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새로 온 청년들이나 소통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청년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한다. 그 청년도 앞으로 청년부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뷰 과정을 2~3차례 함으로 연결하는 사역을 하고, 청년부 전체도 인터뷰 내용을 통해 소통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종합하면, EPIC 소그룹으로서 가능제일교회 문화토론 소그룹, 월간 청년 소그룹은 각자의 생각과 고민에 참여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소그룹 모임을 하고 헤어지는, 전혀 서로의 삶에 참여와 공유가 없는 모임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함께하는 참여의 EPIC 소그룹이다.

EPIC 소그룹: 이미지(Images)

가능제일교회 청년부는 복음을 이론과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이미지화를 통해서 나눈다.

문화 예배, 신앙 그래프

일반적인 예배는 목회자의 일방적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회중들은 듣고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이러한 예배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청년 세대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양한 문화를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전달 받는 것에 비해 교회는 앉아서 듣기만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가능제일교회 청년부는 다양한 감각적인 문화를 접하는 세대를 향하여 문화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복음을 눈에 보이게, 귀로 들리게 복음을 전달한다.

신앙 그래프는 각자의 신앙과 삶을 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그려서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보게 하고, 서로의 신앙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 신앙이 이론적이거나 공허한 것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한다.

사역 내용 - 문화 예배

문화 예배는 1년에 2회~4회 정도 한다. 주제는 TV 프로그램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 듣기, 미술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 듣기, 영화 속에서 복음 찾기 등이 있다. 기본적인 순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순서	내용	담당자
찬양		찬양팀
기도		담당자
영상시청(TV 프로그램 1)	영화	다같이
멘트		송병근 목사
영상시청(TV 프로그램 2)	개그 프로그램	다같이
멘트		송병근 목사
영상시청 (TV 프로그램 3)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다같이
멘트		송병근 목사
나눔 (1,2,3별 소그룹)	미리 자리를 3그룹으로 배치	다같이
기도		다같이

<표2> 문화 예배 순서

준비사항

자세한 내용은 부록 5에서 볼 수 있다.

문화 예배는 TV 프로그램, 가요, 미술 등에서 복음을 듣고 보고 찾는

것이다. 복음이 2000여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나 글이 아니고, 사상이나 감상이 아니고, 삶 속에서 메시지가 분명히 들려지는 것임을 TV와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복음을 확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사역내용 - 신앙 그래프

신앙 그래프는 청년들이 살아온 인생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각 때마다 자신의 신앙의 흐름, 좋고 나쁨을 선의 고저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단순히 생각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표현하여 들여다봄으로 놓쳤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잡을 수 있다.

또한 자신 뿐 아니라 매년초 소그룹별로 각자 신앙 그래프를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흐름에 따라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눈으로 봄으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표현된 그래프를 통해서 서로의 과거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미래의 그래프선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참여한다.

연말에는 청년부 전체의 그래프를 그린다. 한 해 동안 청년부의 모습이 어떠해왔는지 공동체 신앙지수를 그래프로 그린다. 앞에서 한명이 그리고 모두가 각 시기에 어떠했는지 의견들을 말하며 함께 그린다.

준비사항

자세한 사항은 부록 6에서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문화 예배와 신앙 그래프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 스스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이다.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음식을 먹고, 냄새를 맡으며 그 안에도 복음이 있는지 궁금해 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훈련이 된다. 또한 신앙 그래프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를 눈으로 보며 바로 잡아가는 훈련이 된다.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도록 한다.

EPIC 소그룹: 관계(Connection)

가능제일교회 청년부는 소그룹내에서 경험되는 복음을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적 관계의 소그룹인 큐티작 소그룹이 있다. 또한 내부적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복음을 외부로 흘려보내 외부와의 관계에도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큐티작 소그룹

큐티작 소그룹은 기존 목장 소그룹 외에 큐티를 하기 위한 소그룹이다. 큐티 소그룹은 매일 큐티한 내용을 짝으로 묶여진 사람들끼리 나누는 소그룹이다. 2~4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목장 소그룹과는 별도로 말씀과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다. 기존 목장 소그룹이 나이별 혹은 특정 주제에 따라 나뉘었다면, 큐티작 소그룹은 신앙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형성해서 관계성을 통해 신앙의 발전에 주목하는 소그룹이다.

사역내용

방법은 각 소그룹이 편리한대로 진행한다. 카카오톡, SNS, 전화, 오프라인 만남 등 소그룹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단, 큐티 나눔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리된 큐티 내용을 토요일에 큐티작끼리 공유를 하고, 자신들의 일주일간의 신앙의 흐름을 살펴 본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각 소그룹별 1개의 큐티 나눔 보고서를 선택해서 청년부 전체가 함께 나눈다. 그래서 서로의 큐티 방법을 공유하며, 서로의 삶과 신앙이 관계성을 갖도록 전체

모임을 한다. 큐티 나눔 보고서는 아래표와 같다.

“주간 큐티 나눔”

(20 ~)

■ 목장 :
 ■ 이름 : /

	월	화	수	목	금	토
시간						
방법						
내용						

■ 평가 (수정 및 건의사항)
 ■ 질문사항

<그림19> 주간 큐티 나눔 보고서

수련회 교회학교 파송

가능제일교회 청년부는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지원한다. 단순히 청년부만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지원하고 돕는다.

자신들이 교회학교 시절을 겪어오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신앙의 어려움, 갈등들을 통해 교회학교 아이들의 신앙을 돕고 지원한다.

사역내용

먼저, 교회학교 부서들에게 각 부서 여름 사역의 내용을 전달 받는다. 그리고 그 사역에 따라 필요한 봉사자들이 어떠한 부류인지를 전달 받는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교사, 안전요원, 운전자 등 역할과 성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전달 받는다.(그림2 참조) 이렇게 정리된 표를 가지고 청년부에 공지를 하고, 청년부 모두가 선택해서 매칭한다.(그림3 참조) 그리고 청년부에서 파송예배를 갖는다.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경험하고 나누는 선교와 전도의 마음으로 파송예배를 드린다.

2017년 각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청년부에서 작게나마 도우려합니다.
사역내용과 필요한 인원수, 성별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인원을 모아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서	날 짜	요청사역	필요한 날짜	필요인원 (인원수, 성별)
유치부	2017.			
아동부	2017.			
청소년부	2017.			

*청년들의 특성상 모든 기간동안 참석이 불가능할수도 있으니, 필요한 날짜를 잘 분배해서 적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림20> 여름성경학교 지원요청 내용

교회학교 여름사역 파송지원 신청

어린아이들이 1년에 한번 중요한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작은 도움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역의 일꾼들을 우리 청년부에서 파송하고자 합니다.

■ 파송내용

부서	전체일정	요청일정	요청내용
유치부	2017.22(토)-23(일)	22-23일(무박)	아이들 돌봄, 일정진행보조, 코너학습보조 등
아동부	2017.8.18.(토)-19(일)	18-19일	프로그램 보조 물놀이 보조, 아이들 돌봄 등
청소년부	2017.8.3.(목)-5(토)	3-5일	보조교사, 프로그램 보조 등

■ 희망 부서 및 참석날짜

이름 :

	부서	가능한 날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림21> 교회학교 여름사역 파송 신청

지역 봉사단

지역 봉사단은 가능제일교회가 속해있는 가능동 주민센터와 협업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이다.

사역내용

가능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대상을 돕는 일을 한다. 도배하기, 전기 수리, 시설 보수 등이 필요한 가정들을 도와야 하는데, 지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봉사자, 무료 전문가들을 모집한다. 이 일에 가능제일교회가 봉사단으로 지원해서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돕는다. 여기에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봉사단 소그룹도 편성되어 있어서 함께 사역을 한다. 이 사역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과 이웃을 돕는 청년부 소그룹 사역이다. 사역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도배 작업	도배 및 장판 작업



<그림22> 지역봉사단

종합해보면, 청년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의 경험과 연결, 참여를 다른 청년들과 또 교회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지역과 함께 나누고, 지역의 상황에 참여하는 관계성을 가진 사역이다. 교회가 더 이상 독립되고 단절된 공간이 아니고 사회와 함께 해야하는 곳이듯이, 청년부 역시 지역과 함께 하고 다른 세대와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EPIC 소그룹 모델이다.

EPIC 소그룹 평가

단기 선교

단기 선교 소그룹 16명을 대상으로 선교를 다녀오고 1~2주일 안에 피드백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사역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현지인들의 삶을 경험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사역이었다는 평가를 했다.

항목		응답
전체	기존 사역과 달랐다. 선교보다는 현지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있어서 특이했다.	10명
교통수단 길찾기	현지 교통수단을 직접 타는 것이 어려웠다.	13명
	길 찾는 것이 재미있었다.	4명
	다음에는 교통수단 이용법을 미리 많이 공부해야겠다. 매연이 너무 심했다. 잘못하다가는 길을 잃어버릴뻔 했다.	3명
청년소그룹	청년 소그룹이 너무 어려웠다.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어려웠다.	10명
노방전도	노방전도가 너무 어려웠다. 현지 청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힘들었다.	5명
선교보고서	선교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안 다녀온 청년들에게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13명

<표3> 단기 선교 피드백

	교통수단 이용	노방전도	청년부 소그룹	현지 유명지 탐방	어린이 사역

현지인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던 사역은?	10	2	1	3	0
가장 좋았던 사역은?	8	2	1	5	1
가장 힘들었던 사역은?	3	4	8	1	0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사역은?	4	5	5	1	1

<표4> 단기 선교 사역별 피드백

전체적으로 현지 교통수단 이용, 노방전도, 현지 유명지 탐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취지에 맞게 현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이 나왔다. 다만, 청년부 소그룹 사역은 현지인들의 삶을 느끼기에 힘들었다는 피드백이 나왔는데, 이유는 표1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언어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역인 어린이 사역은 준비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피드백이 없었고, 다른 사역들에는 경험의 수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선교 보고서가 단기 선교 소그룹 밖에서 좋은 평가가 나왔다. 선교를 다녀오지 않은 청년들, 당회, 각 선교회 회장들에게 선교보고서가 배부되었는데, 선교를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화 토론

문화 토론의 피드백은 토론을 한 다음주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총 10차례 중 8번의 평가회를 가졌고, 참여자는 평균 36명이었다.

전체 참여자들이 참여한 문화 토론에 대한 평가는 주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제에 관심도가 있으면 좋았다는 평가가 있지만, 관심도가 없는 주제를 진행할 때는 평가가 좋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남북통일, 안락사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과 참여가 떨어졌다.

소그룹 리더 6명을 대상으로도 평가했다. 문화 토론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소그룹 리더들 역시 주제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평가를 했다. 그래서 쉬운 주제들, 관심가는 주제들을 선별해서 진행하자는 평가도 있었으나 무겁고 힘든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어려운 주제나 관심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 후 이야기를 듣고 질의 응답을 하자는 평가도 있었다.

교회에서 조용히 있었던 청년들이 문화 토론 때 큰 소리로 말하며 참여도가 높아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평가도 있었으며, 이제 성인이 된 청년들과 직장인 청년들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무엇보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전반적인 피드백이 있었다.

월간청년

월간 청년은 청년부 소그룹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지역의 유명한 카페나 계절에 따른 아이টে를 다룬 내용들이 재미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월간 청년을 만드는 소그룹팀이 힘들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소그룹팀에서는 주제 계발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따라서

월간으로 하지 말고 격달 혹은 반기별 발행을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인터뷰를 한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가 월간 청년에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경험하고 청년부에 더 깊이 소속된 것 같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문화 예배

문화 예배는 신선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수련회 때나 특별예배를 통해서 오랜 시간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있었다. 앞으로 TV를 보거나 다른 문화를 접할 때,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함께 보고, 이후에 함께 복음의 메시지 찾기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의 평가도 나왔다. 예를 들어, 영화를 함께 보고,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 나누는 방법이다. 또 몇몇 청년들은 시간이 짧은 것이 좋고 길면 주제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다.

신앙 그래프

8개의 소그룹 리더들을 대상으로 신앙 그래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대체적으로 수월하게 잘 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열심이였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평소에 조용하던 청년들도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며, 다만 신앙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대체로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래의 인생과 신앙의 흐름을 설명할 때는 희망적인 그래프를 다들 그렸는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계획들은 다들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에만 초점이 맞춰진 신앙 그래프 보다는 미래를 향한 신앙 그래프에도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리더들의 평가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상세한 목표설정, 신앙계획 등을 예시로 제시하면 좋겠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임에도 과거 신앙의 흐름을 전혀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마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모든 소그룹 리더들이 했다.

청년부 전체 신앙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매우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다만 시간이 빨리 끝났다는 평가가 있다. 다음에는 청년부 전체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당되는 시점에 사진도 함께 보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되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큐티작

큐티작은 총 18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졌는데, 18개의 그룹 중 9개의 그룹의 각 큐티 보고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체적으로는 신앙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였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전화나 문자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큐티작이 3명이상 보다 2명이 오히려 좋다는 평가가 5명의 제출자에게 있었으며, 이에 반해 2명이어서 큐티를 빠뜨린 날이 많았다는 평가가 4명의 제출자에게 있었다.

여름 사역 지원

여름 사역 지원은 파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형식을 갖추어서 좋았다고 한다. 또한 미리 교회학교 부서들에게 필요한 봉사 내용과 인원수를 받은 것이 좋았다고 한다. 기존에는 갑작스럽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미리 조사를 하고, 청년부에서 분배를 했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랐다고 평가한다.

특히 과송예배를 드린 점이 신선했고, 단순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사명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남자 청년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리고 여름 사역 이후에도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하게 되었고, 청소년들 경우는 계속해서 고민을 상담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교회학교 부서 교사들과도 관계가 형성되어서 좋았다고 하며, 아이들 뿐 아니라 교사들과도 관계성이 형성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참여하고 싶었으나 휴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한다. 청년부 수련회와 여름 사역 지원 모두 휴가를 낼 수 없는 청년들의 경우 다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지역 봉사단

지역 봉사단 소그룹 8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총 2차례 봉사를 했는데, 2차례 모두 좋았다고 한다. 지역과 관계를 맺고 봉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며,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복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알려준 날짜와 맞지 않는 경우에 봉사를 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제 V 장

요약 및 결론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소그룹이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신앙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을 성서적, 신학적, 목회적, 교회사적으로 살펴보고, 소그룹의 특징과 종류, 한계까지 분석함으로 소그룹의 발전적 모델을 연구해 보았다. 이를 통해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기초로 새로운 소그룹 모델의 틀을 제시했으며 그것을 적용한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소그룹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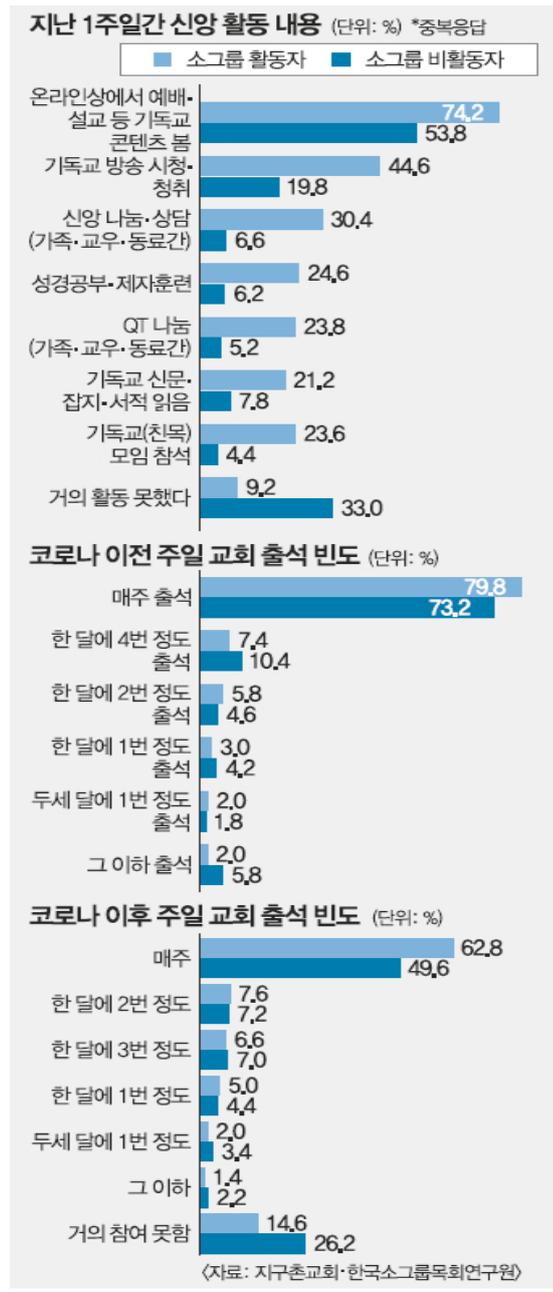
소그룹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은 여러 가지 형태와 성격의 소그룹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회의 소그룹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수동적이며 일방인 성격과 형태를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해 교회의 침체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소그룹의 발전 및 변화는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기초로한 소그룹 모델을 제시해 보았다.

수동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경험(Experience)이 있는 신앙, 일방적이고 멈춰있는 신앙이 아닌 참여(Participation)하고 소통하는 신앙, 이론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닌 이미지/Images)로 감각적 소통이 일어나는 신앙, 분리와 단절이 아닌 관계(Connection)와 연결로 이루어진 신앙은 EPIC 소그룹 속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사례로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소그룹을 소개해 보았다.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소그룹 중 전체 소그룹, 선교 소그룹, 봉사 소그룹, 교육 소그룹, 큐티 소그룹, 문화 소그룹 등을 통해서 어떤 분야의 소그룹이든 EPIC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연구의 결론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 목회자의 설교, 프로그램, 조직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나누고 소통하며 사용하고 활용하는 성도들의 자세와 형식이 있어야 교회는 움직이고 성장해 가는데, 이러한 형식과 자세와 마음가짐은 소그룹을 통해서 응집되고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활발한 소그룹과 소그룹 성장을 통해 발전하고 부흥했다. 이것은 과거 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소그룹의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소그룹 활동을 했던 사람들과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 활동에 차이가 있다.



<그림23>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 신앙활동 내용비교⁸⁵

그러나 이렇게 소그룹이 개인과 교회 전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소그룹은 발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소그룹에

⁸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8461&code=23111111&sid1=yeo> [2022년 1월 20일 최종접속]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그룹은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고 소그룹의 신앙 응집 기능은 떨어짐에 따라 현대 교회들은 교회 소그룹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소그룹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도 한다. 논자가 전임 사역으로 경험했던 3곳의 교회 모두 소그룹의 변화를 고민했다. 첫 번째 교회는 구역 소그룹을 지역에 따라 나누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소그룹의 참여도와 응집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자녀들의 연령대에 따라 소그룹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기존의 지역에 따른 구역 소그룹은 서로에 대한 소통이 없었으며 세대가 다름에 따라 경험과 공감의 의지가 부족했다. 그래서 자녀들의 세대별로 소그룹을 묶어서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경험하려고 했다. 두 번째 교회는 30대, 40대 교인들의 교회 참여도가 떨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30, 40대 소그룹을 형성했다. 30, 40대를 위한 예배 소그룹, 교육 소그룹 등을 만들어서 공감과 소통을 이루려고 했다. 세 번째 교회는 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이른바 리스타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그 중에 소그룹 개편 분과를 통해 소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꾀했다.

따라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들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소그룹 모델이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기초로 EPIC 소그룹 모델을 제시했다.

EPIC 소그룹 모델은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반영한 모델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전체의 소통과 참여, 신앙 성장에 적합한 모델이다.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소그룹은 기존에 해왔던 소그룹 모델과는 다른 EPIC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사역을 펼치고 떠나는 선교가 아닌 현지인의 삶에 참여(Participation)하고 경험(Experience)하는 EPIC 선교 소그룹 모델이다. 선교는 자신이 가진 복음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

모델을 통해 소그룹 구성원의 신앙 시각이 넓어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는 선교 사명에 대해 교회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하는 모델임을 확신한다.

또한 일방적인 교육과 이론에 집중된 소그룹이 아닌 이미지(Images)와 관계(Connection)로 하는 EPIC 소그룹 모델도 볼 수 있다. 복음을 TV, 드라마, 영화, 음악, 미술 속에서 찾고 확인한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문화와 복음의 간격을 서로가 함께 묻고 답한다. 일방적으로 듣고 수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과 교리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문화와 비유, 이미지, 소리를 통하여 경험하고, 서로의 삶과 생각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삶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함으로써 개인 믿음의 성장과 전체 구성원의 발전이 함께 이뤄져가기에 적합한 모델임을 확신한다.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 즉, 교회 안에서 모두가 소통하고 연결되고, 각자의 믿음과 삶에 대하여 참여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이 움직임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신앙을 살아있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움직여야 하고 이것은 교회 역사가 증명한다. 따라서 COVID-19 이후 교회가 새로운 출발과 성장을 모색하는 이 시대에 소그룹의 변화는 필수적이며 EPIC 소그룹 모델이 그 답이라고 볼 수 있다. EPIC 소그룹 모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부흥과 개개인의 신앙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참고 문헌

번역 서적

Daniel L. Migliore, *기독교조직신학 개론*, 신옥수, 백충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Paul Tillic, *그리스도교 사상사 I*, 송기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한국어 서적

김영래, *미래교육목회*, 서울: 통독원, 2010

네비게이토, *소그룹 인도법*, 서울: 네비게이토, 1997

박경수, *교회사 클래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최운배, *칼뱅신학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이성희, *미래 목회 대예언*, 서울: 도서출판 규장, 1998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3

논문 및 간행물

김영태, “소그룹 목회의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 *개혁주의성장학회*7 (2013)

김한옥,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 *신학과 실천*12 (2007): 25.

박응규, “은보 옥한흠 목사의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훈련목회.” , *성경과 신학*65 (2013): 122-134.

오현철, “예수생명이 약동하는 공동체, 소그룹.” , *성경과 신학*65 (2013): 194.

지용근, “한국 교회 트렌드에서 2023년 목회 방향과 전략을 읽다.” , *목회와 신학*403 (2023): 152.

웹사이트

목회데이터연구소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1&page=2
(2023년 1월 10일 접속)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8&page=2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1&page=2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1&page=2
(2023년 1월 20일 접속)

기독신문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84>

(2023년 1월 10일 접속)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8461&code=23111111&sid1=yeo>

(2022년 1월 20일 접속)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42923&code=61221111&sid1=all>

(2022년 12월 29일 접속)

주간 코스메틱

<https://www.geniepa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50>

(2022년 12월 21일 접속)

데이터넷

<https://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33>

(2022년 12월 23일 접속)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2161225285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311274021985>

(2022년 12월 29일 접속)

빅터뉴스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9>

(2022년 12월 29일 접속)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2/16/3CEEIUTTJGMBEWEXOP5M75J0Q/>

(2022년 12월 15일 접속)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302/99972444/1>

(2022년 11월 30일 접속)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828/115185994/1>

(2022년 12월 29일 접속)

브랜드브리프

<https://www.brand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1>

(2022년 12월 1일 접속)

한경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247069g>

(2022년 12월 1일 접속)

디지털인사이트

<https://ditoday.com/%EC%9D%B8%ED%8F%AC%EA%B7%B8%EB%9E%98%ED%94%BD-%ED%99%9C%EC%9A%A9-%EC%82%AC%EB%A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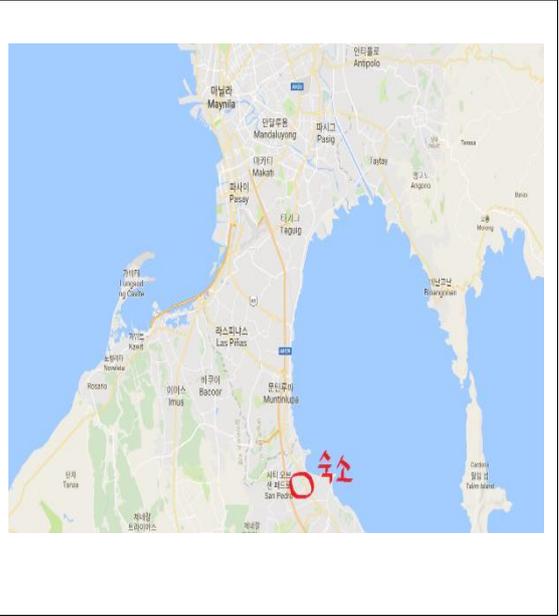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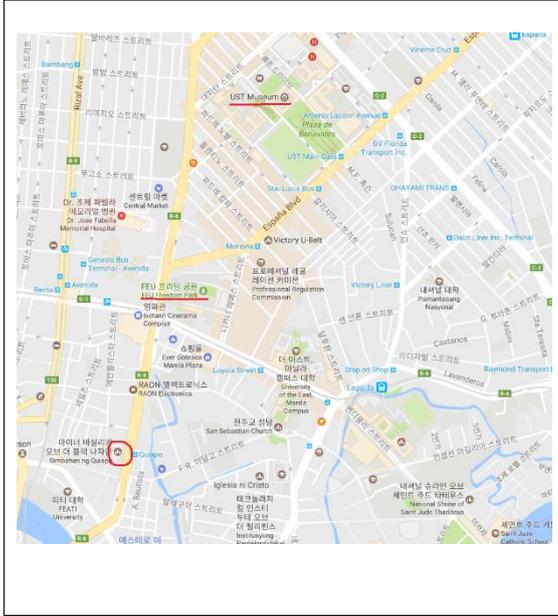
(2022년 11월 30일 접속)

부록1. 단기 선교 계획서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단기선교 계획서

1. 지역지: 필리핀
2. 일시: 2017년 6월 22일(목) ~ 26일(월)
3. 인원: 16명
4. 주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19절
5. 일정

	목	금	토	일	월
오전	현지체험(전도)	현지체험 (전도)	현지체험 (전도, 전도집회)	예배참석	귀국
오후				청년부 예배	
저녁	현지 청년과 모임	현지 청년과 모임	현지 청년과 모임		



부록2.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 선교책자(일부)



2017 가능제일교회 청년부
어울림 선교팀

어울림

2017떨리떨단기선교

송병근 원주희 김혜람 이성호 이승비 이승찬 이희정
 임성빈 임재민 장명권 전문정 전현정 최보람 함희정

목차

가능제일교회의 2017 선교 갈 준비

- 주제성구/일시/장소
- 선교인원보고
- 사역세부일정표
- 사역준비모임일정
- 선교팀 기도제목

가능제일교회의 2017 선교 중

- 선교일지
- 평가회
- 소감문

가능제일교회의 2017 부록

- 사역사진
- 예산보고

선교일지

3일차

날짜 : 2017년 06월 24일 (토)

날씨 : 맑음

인솔자	송병근 목사님	기록자	이희정
팀 원	김혜람, 원주희, 이성호, 이슬비, 이승찬, 이희정, 임성빈, 임재민, 장명권, 전윤정, 전현정, 최보람, 황희정		

하루일과 및 사역

시간	장소	내용 및 프로그램
7:45~8:30	숙소 10호실	아침 경건회, 사역물품 정리
8:30~9:00		바안바야난 교회로 이동
9:00~9:30	바안바야난	교회 주변 전도 초청
9:30~10:00		전도행사프로그램 -영어찬양율동
10:00~10:30	바안바야난 교회	예배 (송병근 목사님 설교)
10:30~12:30		전도행사프로그램 -인형극/판박이, 풍선아트, 플라로이드 촬영, 비눗방울
12:30~13:30		점심식사
13:30~14:30		산페드로 교회로 이동
14:30~15:00	산페드로	교회 주변 전도 초청
15:00~15:30		전도행사프로그램 -영어찬양율동
15:30~16:00	산페드로 교회	예배 (송병근 목사님 설교)
16:00~18:00		전도행사프로그램 -인형극/판박이, 풍선아트, 플라로이드 촬영, 비눗방울
18:00~19:00	숙소	씻기
19:00~23:30	알라방 타운센터	선교사님과 저녁식사 및 구경
23:30~	숙소	사역평가(피드백 나눔) 건강상태확인 다음 날 일정 공유 및 기상시간 전달

선교평가회

▼2017.06.22.(목) 선교사님과의 피드백

성명	느낀점
임성빈	우리나라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60 ~ 70년대 모습을 보았음. 그 로 인해 도전의식을 받았고 마음 속 깊이 감동.
이슬비	잘 보이는 곳은 아주 잘 닦여있었지만,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보며 마음이 아팠음. 전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필리핀 현지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음.
전현정	피곤했지만, 현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었음.(성당 뒤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많은 고양이와 개, 일하는 엄마 곁에 가까이 있는 아기의 모습.)
장명권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있음. 전도할 때,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데도 밝게 맞아주는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의 준비성을 돌아보게 됨. 행복했음.
최보람	필리핀은 무질서했지만, 발달된 곳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곳임. 전도를 할 때, 영어의 능숙하지 못함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그만큼 좀 더 준비된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함을 느낌.
황희정	주어진 하루에 대한 감사, 필리핀에 와서 선교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다잡게 됨.
이승찬	반갑게 맞아주는 현지 사람들을 보며 감사,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 있어 폐쇄적인 것에 안타까움.

⇒선교사님의 말씀

필리핀 사람들은 들어주는 것을 잘하고, 알든 모르든 알려주고 싶은 책임감이 강하고, 웃는 상임. 전도할 때, 우리가 서툴게 내뱉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2017.06.23.(금)

우리는 더욱 좋은 환경에 있음을 알자.(→지침 시간도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앞으로 어떻게 나눔을 하며 살 것인가?, 나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017.06.24.(토)

성명	느낀점 / 칭찬
임성빈	<p>준비한 만큼 보여줘서 좋았음, 현지 청년들과의 의사소통이 있었음, 2일 동안의 아웃팅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좋았음.</p> <p>→선교와서는 또 다른 이미지였음.(열정적임) →막내인데도 든든함. →영어를 잘함.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열정적인 모습, 책임감.</p>
임재민	<p>작년과는 다른 느낌, 살가운 필리핀 사람들에 고마움, 현지 청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 사역도 만족스럽게 끝남.</p> <p>→다이어리쓰는 꼼꼼한 사람. →기존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모습, 선교에 임하는 자세가 훌륭함. →유치부 교사로서도 열정적인데, 이번 선교에서 특히, 전도에 열정. →2번째 오는 것이지만, 좀 더 성숙해진 모습.(말은 사역 전에 기도하고 시작) →비눗방울팀장으로서 준비하고 책임감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멋짐.</p>
이희정	<p>선교오기 전의 목표는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것이었는데,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낌. 현지청년들의 성숙한 모습과 배려를 보고 또 성장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고 나에 대해 더 알아 갈 수 있는 시간이었음.</p> <p>→영어 열심히 →학교생활 중에 힘들었는데 선교와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음. →조에서 배려하는 모습과 해맑은 모습 →성숙함, 준비된 모습, 대견함.</p>
황희정	<p>첫날은 다 좋았고, 둘째 날은 분량을 채워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셋째 날은 정신이 없었음. 어린 친구들의 에너지가 좋았고, 전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음, 준비한 것들을 다해서 좋았음.</p> <p>→선교에 함께 있는 것이 신기하고 책임감이 느껴짐 →귀엽고, 밝고, 긍정적이고 착함 →어렵고 잘 모르는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가기까지 되게 힘들었을 것. →오래 전부터 우리 교회에 함께 다닌 것 같음 →편하고 궁금해지는 친구였음</p>
전윤정	<p>주도적으로 임한 선교였음. 2017년이 되어서 좀 더 청년부가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음. 전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가서 좋았음. 부끄러움을 느낌</p> <p>→어리지만, 현실적인 친구, 절제적, 분위기메이커</p>

	<p>→영어 잘했음, 노방전도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좋았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상을 쓰지않고 잘 해 주었음. →선교에 같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음</p>
<p>이승찬</p>	<p>필리핀 친구들의 순수한 모습을 많이 봄. 책자 나눠 줄 때, 아쉬움이 있었음. 힘든 선교였지만, 잘 끝낸 것 같음.</p> <p>→선교와서 더 친해질 수 있었음 →적당히 풀어진 모습을 보여줌. 선교와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봄. →열정적, 든든함, 묵묵함 →좋은 친구, 의외로 귀엽고 순수함.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보았고, 동생들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며, 좋았음. →조 안에서도 든든하고 섬세한 면.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긍정적이고 좋은 친구.</p>
<p>전현정</p>	<p>선교 준비과정에서 불안감이 커서 열정적이지 못했음. 그렇지만 현지에 와서야 왜 선교를 오는지 이유를 알게 됨. 다른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움. 필리핀 문화와 체험에 만족스러움.</p> <p>→같은 조, 조 구성원들을 잘 챙겨줘서 고마웠음. →교회 교육부서 안에서도 그랬듯이, 선교와서도 안 보이는 곳에서도 묵묵히 잘 해줌. →숨기는 감정이 많은 친구, 열정적 →이번 선교를 통해 믿음 생활의 중심을 잘 잡아 줄 수 있길 →회계에 대한 자리를 잘 지켜줘서 고마움. →선교 안에서 여러 역할들을 잘 지켜줘서 칭찬함.</p>
<p>김혜람</p>	<p>조장의 자리, 아쉬움이 남음. 노방 전도는 할 때마다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어려움을 느낌. 열심히 전도를 준비한 과정에 비해 (전도)거절을 당하게 되어서 힘들었고, 자신감도 떨어짐. 현지 교회 아이들을 보며,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음. 발목이 아픈 것에 대한 미안함. 선교가기 전에도 불안함을 느꼈는데, 선교와서도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공허함이 들. 선교 오기 전에 현정청년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잡은 것에 좋았음. 감사의 매순간.</p> <p>→같은 비숫방울 조에서 꼼꼼하고 계획적인 모습을 봄. 책자와 내비게이션과 같은 모습 →같은 조 막내이지만 리더로서 묵묵하게 역할을 해냄. 아픈 것도 티내지 않고 잘 해냄. 강하고 담담한 줄 알았지만, 같은 20대 여성으로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봄. 그래도 힘든 상황을 잘 참고 인내. 고맙고 우리의 조장(리더)이어서 다행</p>

	→성실하고 열정적, 노방전도도 자기가 따로 분리해서 할 정도
이슬비	<p>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고 선교를 가는 것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불안함을 느낌. 필리핀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음. 영어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음. 전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전도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 떨림을 통한 훈련의 필요성을 느낌. 찬양을 다 끝내고 나서 기쁜 마음과 아쉬움이 공존했는데, 아동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음. 아이들에 대한 감정의 감사함과 동시에 돌아가서도 또 다른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음.</p> <p>→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을지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이 이야기를 한 성빈)자신에 대한 신앙도 돌아보게 됨. →조에서 중요한 역할이었고 의지가 되었음. 꼼꼼하면서도 든든. 팀원 하나하나를 잘 대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책임감이 강한 친구, 첫 번째 순서의 사역(찬양을)을 맡아 하는 모습에 대단함을 느낌. →감동, 감사 →선교 가기 전에 의지가 많이 되었음.</p>
원주희	<p>건강의 안 좋음(발등). 선교 첫 날에 열정적인 팀원들의 모습을 보았고, 둘째 날엔 사람을 보고 선교를 온 것 같다는 생각에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송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감동(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 사역지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 스스로 결단할 수 있어서 좋았음.</p> <p>→함께 다니면서 엄마 생각이 나게하는 팀원. 팀장님이 그동안 많이 고생하심에 감사함.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감동적, 섬세함, 진심이 느껴짐. →평소에 의지하는 것을 잘 못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팀장 역할이 아주 잘 어울렸고, 잘했던 것 같음. →선교팀 팀장을 하면서 귀한 마음과 달란트를 얻으신 것 같아서 좋았음. →의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이 큼. →팀장으로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을 신앙생활의 성장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서 대단함.</p>
최보람	<p>현지 청년을 보면서 대단함. 전도할 때,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은혜로웠음. 현지 청년들과 교회 내에서 같은 역할인 교육부서를 맡고 있지만,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되어 반성과 훈련의 필요성을 느낌. 현지 아이들의 힘이 넘치는 에너지를 보며, 더 열심히 했음. 활동 중, 불편했던 이동 간에 느꼈던 불만감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약함을 느껴서 반성. 상황과 처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말은 안통해도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음. 하나님께 더 감사함을 느낌.</p>

	<p>→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티를 안내셔서 잘 몰랐고, 그만큼 더 잘해줬고, 좋아보였음.</p> <p>→어려웠다고 생각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것 같음.</p> <p>→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p> <p>→힘든 상황 속에서 잘해줬고, 대단함.</p> <p>→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해주는 모습에 더 존경.</p> <p>→재민이와 같은 열정적인 모습.</p>
<p>이성호</p>	<p>작년과 올해 선교를 비교해 보며 되게 좋았음. 자신이 팀원들에게 배려를 하는 모습 속에서 좋았고 뿌듯함. 전도를 하면서 영어는 잘 못했지만, 열정적으로 임함. 모든 선교활동이 세세하게 기억이 남. 선교를 오기 전, 일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선교를 와서 본 아이들의 모습이 좋았고, 특히 그 미소가 되게 좋았음. 선교 후에도 길이길이 기억할 것 같음.</p> <p>→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달란트가 있음을 알고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 좋았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챙겨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기대됨.</p> <p>→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비하가 많지만, 충분히 잘 해내고 있음.</p> <p>→챙겨주는 것에 대한 감사.</p> <p>→함께 선교와서 팀원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 열심히 해줘서 좋았고, 고마움.</p> <p>→하나님께서 성호형제가 선교를 오게 할까지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음. 선교하면 이성호.</p>
<p>장명권</p>	<p>갑작스런 조장에 혼란스러움. 선교를 하면서 책임감에 힘들었음. 선교지에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도 아팠음. 또 다시 선교에 오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와야겠다는 생각이 듦.</p> <p>→조를 잘 이끌어줘서 감사하고 존경</p> <p>→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많은 사역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대단, 고생</p> <p>→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집담당 역할도 열심히 잘해줌.</p> <p>→조 안에서 막내들과 함께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보였음.</p> <p>→변화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좋았음. 같이 갈 수 있음에 좋았고 분위기를 잘 이끌어줌.</p> <p>→힘들지만, 좋은 말과 행동을 해주는 성품에 감사. 같이 못갈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었음.</p>

송병근 목사님의 피드백

⇒더운 날씨였지만, 몰입하며 다같이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며 대단.

준비과정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느낌.

이 팀만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계획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자.

▼2017.06.25.(일)

건의사항, 개선점

1. 인형극 사역 준비 때,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아이디어)을 미리 듣고 준비했음 좋았을 것.
2. 이동수단가격(작은 돈 환전 미리 해두기), 날씨에 대해 미리 알았음 좋았을 것.
아웃팅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땐, 차량 렌트하기.(확실한 교통수단이 있었음)
3. 선교 전, 회화 공부 미리 하기.
4. 피곤하지 않는 스케줄이었음 좋았을 것
5. 주일에 예배 후, 청년들과 성경나눔시간을 가졌음 좋았을 것.
6. 아웃팅 할 때, 현지 가이드의 도움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보고 갔음 좋았을 것.
7. 선교 전, 노방전도(아웃팅) 할 장소를 먼저 공지해주면 알아보기.
8. 노방전도할 때, 전도책자의 내용을 미리 알았음 좋았을 것.
9. 뽀뽀한 일정에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거나 미리 전도지에 대한 정보를 알았음 좋았을 것.
10. 아이들 전도집회 때, 여러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스페어 역할의 사람들도 있었음 좋았을 것.
11. 다른 조 팀원들과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 좋았을 것.
12. 하루 하루 일정이 끝나고, 조별로 나눔 피드백을 가졌음 좋았을 것.(기도로 준비)
13.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역을 하는 팀원들에게도 관심을 가졌음 좋았을 것.
14. 조별로 현지청년이 정해지면 미리 연락하고 친목 다졌음 좋았을 것.
15. 어린이 전도집회를 하루가 아니라 2~3일 정도 했음 좋았을 것.
16. 선교기간을 조금 길게 갔음 좋았을 것.
17. 사역물품에 대한 수량을 넉넉하게 준비해두기.(사역에 대한 준비)
18. 공동체 시간 잘 지키기.
19. 작년에 왔던 청년들은 코스가 반복되서, 새로운 코스를 가봤음 좋았을 것.



건의사항에 대한 총피드백

1. 아웃팅할 때, 전도책자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미리 그 책자에 대한 언급을 못하게 됨. →착오
2. 성경공부에 대한 아쉬움은 작년에 성경 공부를 빼달라고 한 건의로 인해 발생.
3. 아웃팅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숙지해 갔었는데, 코스가 현지 사정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됨.
4. 교통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사역을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땐, 꼭 렌트할 예정. → 이번 선교에서는 현지청년들과의 교체로 인해 무리가 되었음.
5. 선교 내에 순종해야할 부분이 있어서는 순종하기.(선교사님의 스타일도, 모든 상황에서도) 선교의 시작은 선교사님의 의견에 맞춰가는 것.
6. 아롱부 영상은 예배 순서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다같이 시청은 못했지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줬음.
7. 사역 물품 수량의 부족함은 예상보다 교회 아이들이 많이 와서 발생.
8. 사역 후에 피드백과 나눔을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함.

선교소감문-이슬비

그 어떤 여행보다 특별했던 선교

수십 번도 더 다녀왔던 여행이지만, 이번 필리핀 선교는 그 어떤 여행과도 같지 않았고 그 어떤 여행 이상으로 특별했다. 필리핀 현지의 안전 문제와 아버지의 반대 등 준비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티켓을 끊고, 가서 진행 할 사역들을 준비하고, 떠나는 날이 코앞인데 그 때까지도 선교가 확정되지 않아 힘겨운 마음으로 기도했다. 첫 선교를 설레며 즐겁게 준비하던 마음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누구보다 엎드려 많이 울었고, 그 과정에서 주님은 기적과도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이미 그걸로 선교 출발 전에 나는 충분히 은혜를 경험했고 이번 선교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크게 누리고 돌아오겠다는 결심으로 떠났다.

선교 출발 전에 했던 기도를 주님은 다 기억하셨고,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 다시 돌아보면 내 기대와 생각 이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1. 현지 아이들 섬김

정말 뜨거웠던 토요일, 오전과 오후 두번을 나눠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 섬김 활동을 진행했다. 모든 예배의 시작을 '영어 찬양 율동'으로 섬기게 되었다. 즐겁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를 드린 뒤, 비눗방울과 인형극, 풍선, 사진촬영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피부가 좀 까맣게 타는 것 짜이!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순간이었다.

2. 주신 달란트로 섬김

항상 기도 해 왔던 것은, 주신 달란트로 나를 잘 써주시길 소망한다는 기도였다. 찬양과 율동으로 아동부를 오래 섬겨왔지만 또 필리핀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달랐다. 영어 공부에 열정을 부릴 수 있게 인도 해주셔서 현지에서 또 영어로, 찬양으로 섬길 수 있어 감사했다. 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홀로 서면 완전하지 못하지만 함께라면 온전히 아름다운 청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3. 현지 청년들과의 교제

항상 웃는 얼굴로 반겨주고, 배웅하며 작은 선물을 쥐어주기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까지도 SNS를 통해 보고싶다는 연락을 잔뜩 보내준 따뜻한 마음의 필리핀 청년들. 지프니를 타고 수영을 함께 하며 정도 많이 들었고, 우리보다 어린 청년들과의 대화 속에서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필리핀 청년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4. 함께 한 우리 청년부에 대한 이해

5일동안 함께 먹고, 자고, 이동하고, 웃고, 추억을 쌓으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청년부끼리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다. 서로의 상황과 어려움, 기도제목, 비전 등을 공유할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한명 한명이 무엇보다 귀했다. 단 한명도 하나님께 계획 하시지 않은 청년이 없었고 큰 어려움이나 트러블 없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5. 필리핀 땅을 위한 기도

반부격차, 카톨릭의 우상화, 열악한 환경 등 필리핀을 위해 기도 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도 많다. 지금은 편한 환경 속으로 돌아왔지만 짧지만 강렬했던 필리핀을 잊지 않고 또 삶으로 전하는 내가 되길 소망한다.

다.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웠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해야겠다. 부끄럼지 않은 크리스찬으로, 진심을 담아 가까운 사람들부터 주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한다.

섬기려 갔지만 오히려 큰 마음을 받고 돌아왔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 이상의 깨달음, 배움, 사랑, 순수한 미소를 쪽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길 소망한다.

부족한 나를 부르고, 세워주셔서 선교지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록3. 문화토론 진행내용

제 3 회 청년부 문화토론

주제: 교회 다니면 술을 마시면 안되나요?

1. 토론 전

- 1)먼저 찬성과 반대 2부류로 나눈다. -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2부류로 분류
- 2)토론 내용을 기록할 1명을 선택한다.

2. 토론 중

- 1)목자의 진행에 따라 각자의 생각을 제시
- 2)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그 생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 3)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 4)결론을 도출해 본다.

3. 토론 후

- 1)토론 내용들을 정리한다.
- 2)느낀 점을 공유한다.
- 3)주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을 선정한다.

제4회 청년부 문화토론

전체 기준 제시

- 1.부분적 찬성과 부분적 반대/ 완전한 찬성과 완전한 반대
- 2.모두가 발언하도록(발언권을 4씩 묶어서 차례로 넘긴다.)
- 3.결론으로는 서로 수용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1. 동성애 찬성과 반대

- 1)기준:여기서 동성애의 기준은 남성간, 여성간 모두를 포함하며,
- 2)먼저 시작은, ①동성애를 왜 찬성하는가? 왜 반대하는가?를 각팀이 주장.

&

- ②동성애 찬성자들은 반대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③동성애 반대자들은 찬성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3)기독교의 입장은?

2.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

- 1)기준:
- 2)먼저 시작은, ①사형제도를 왜 찬성하는가? 사형제도를 왜 반대하는가?를 각팀이 주장.

&

②살인자들의 사형에 대하여

③살인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경우 사형에 대하여

3)기독교의 입장은?

3. 혼전 동거에 대하여

1)기준:여기서 혼전 동거의 기준을 경제적 부족이나 피치못할 사정(예, 결혼이 다음달인 경우)을 제외한, 연애에 의한 동거로 정한다. 그리고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 혹은 결혼은 안하겠다 라는 것은 미정인 상태로 한다.

즉, 동거만 하겠다 라는 것, 동거해보고 결정하겠다도 포함된다.

2)먼저 시작은, ①왜 찬성하는가? 왜 반대하는가?

②성관계만 없으면 가능한 것인가?

3)기독교의 입장은?

부록4. 월간 청년(일부)



월간청년

목차

- 교회소식 청년부 소식
- 문화 카테고리 1. 가을에 가기 좋은 명소
 - 2. 책리뷰
 - 3. 우리동네 카페 소개
- 신앙 카테고리 (목사님 알려주세요)
- 인터뷰 (한솔기, 김명관, 김형빈, 전현정)
- 에디터 한마디



문화

카테고리

가을에 가기 좋은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게 즐거움이지 싶은 청년들!
"한강에 가면 자야할때에서 전단지 많이 나눠주니까 보고 끌리는 거 사저 먹자." 한강에서 사저 먹는 피자, 떡볶이, 저린 족발 등등 이제 질리셨다구요? 한강에서 새로운 먹방이 필요하신분들 을 위해 밤도깨비 야시장을 소개합니다~

*추가 요금 (1시간 초과시)

마켓	시간	장소
여의도 월드컵이마켓	매주 금토 18:00 23:00	여의도한강공원 율뿔광장
빈포 낭만달빛마켓	매주 금토 18:00 23:00	빈포한강공원 달빛광장
DOP 청춘전제마켓	매주 금토 18:00 23: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청계천 타임투어마켓	매주 토 17:00 22:00 일 16:00 21:00	청계천
문화비축기지 숲속피크닉마켓	매주 토일 16:00 21:00	문화비축기지
청계광장 시즌마켓	시즌별 금토일 18:00 23:00	청계광장



세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릭존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며, 우리가 흔히 먹는 메뉴들부터 처음 보는 메뉴들까지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 * 유명한 푸드트릭존이 거기까 일행들이 나누어서 즐 서는 게 좋아요!! 사진을 보니까 다시 군침이 도네요... ㅎ



푸드트릭존뿐만 아니라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핸드메이드존,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월드존, 전 세계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이벤트존까지 어느 아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또한 야시장이다 테마가 달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으니 모든 야시장을 도전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떠나요"

가족들과 함께 힐링하고 싶은 청년들!
 연령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가족들과 산책하여 힐링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양주 나라공원을 소개해드
 립니다. 나라공원에는 SNS에서 핫한 핑크올리과
 아주 예쁜 색감을 자랑하는 천일홍 등 다양한 꽃들
 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라공원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흐린 날씨에
 가서 안 예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흐린 대로 운
 치 있고 좋았어요. ㅎㅎ 제 또래들보다도 어르
 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서 저도 할머니와
 함께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알려주세요

성선설? 성악설?



성선설이 맞나요?
성악설이 맞나요?

성선설은 사람이 본래부터 선하니 덕으로 감화시켜 선한 본성을 고양시키자 라는 것이고, 성악설은 사람이 본래부터 악하니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자는 것이지요.

결국 본성이 무엇이니를 정의하기보다, 그러니 잘살아 보자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에게선 덕도 법도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성선설과 성악설 중 무엇이 맞는가에 크게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덕과 법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선 선과 악도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이에서 갈등하느라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불릭을 날리기도 하지요. 시도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한 번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랑의 용에서 누가 나를 건져랴 (롬7:21, 24)

선과 악 먼저 묻고 싶네요. "당신은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악한 사람인가요?" "예수님 믿고 책애겠네요, 여전이 그대로인가요?"

'성선설은 사람이 본래부터 선하다, 성악설은 본래부터 악하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참 많이도 풀었어도,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견이 발생한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 애달픈 고백이자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들도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예뻐하기도도 질투 섞인 마음으로 괴롭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착한 마음이 들다가도 누군가에게는 어떻게든 복수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에게선 성선설과 성악설 둘 중에서 무엇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호라 곤고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라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앞에서

속자는 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성선설 아닌가요? 주변을 둘러보면 금방 알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니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착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도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도바울의 고백을 매일 해야 합니다.

"나는 선과 악이 함께 있어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늘 갈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을 숨기고 선한

척, 신앙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지 않고 갈만 번지르르한 선보다는, 감추지 않고 내어놓는 곤고하고 애달픈 악이 은혜에 더 노출되지 않을까요.

(다음페이지 계속)



유치부 교사 & FC가능 팀장

PART3 김형빈

질문자: 안녕하세요. 올간 청년부 인터뷰를 맡고 있는 임재민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해요.

형빈: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라고 엄청 긴장 돼네요.

질문자: 아니에요(웃음).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청년들도 다~나중에 진행할 거예요.

형빈: 네 알겠습니다. 성실성이겠 임해볼게요.

질문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형빈: 안녕하세요. 유치부 교사이자 FC가능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형빈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직장이에요. (빙긋)

질문자: 네 요즘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멋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정반 청년만의 매력 포인트는?

형빈: (박장대소)이거 공식 질문인가요? 바로 매력 포인트를 물어보세요?

질문자: 제 마음입니다. (웃음) 어쩔 수 없어요. 인터뷰 인질요.

형빈: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음. 제 입으로 매력 포인트라니... 제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 지냈었나? 그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형빈 청년은 장 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적 응력?

질문자: 오~적응력 말고 다른 매력 포인트도 있을까요?

형빈: 그리고 또... 어렵다... 아, 사람이 장 타깝적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감 전 책임감 중요하게 생각해서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질문자: 맞아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 형빈 청년은 책임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 많이 닮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 좋아하는 취미는?

형빈: 아, 취미 분명하죠. 근데 조금 뻘뻘한 취미라서 축구, 당구 그리고 몸으로 활동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운동만 좋아하나요?(웃음)

질문자: 아뇨, 아뇨 운동은 뭐 거의 모든 게 좋아하시니까요! 그럼 특별히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을까요? 아... 축구죠? 또 다른 취미 있을까요?

형빈: 맞아요. (목소) 축구죠 음... 다른 취미는 때때로 강도 외국에 경치 좋은 곳들 있거든요. 그런 곳으로 드라이브하는 거 좋아해요.

질문자: 아 드라이브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디로 자주 가세요?

형빈: 음 외국 쪽에 전강 쪽도 그렇고 영주, 비주, 등등 전 그쪽에 참 좋은 곳이에요.

질문자: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혹시 누구랑 같이 가세요? 외 혹시 여자친구?

형빈: (장색)아예야, 혼자 갑니다.

질문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청년들이랑 함께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웃음)

- 요즘 고민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청년들에게 나눠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형빈: 고민이라...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받아 들이지 못한 되지 않아서 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갖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조금 고민이에요.

질문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형빈: 아픈 데 깨르시네요. 다 얘기할게요? 원피스가 어울릴만한 정순함을 가지고 있고, 반전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너무 말네요. 애 애고 말고 재 말 이런 캠퍼스 죽는 여자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요.

질문자: (박장대소)실작하시네요. 강사랍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형빈: 외국 여행 가고 싶어요. 외국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요즘 다른 분들도 외국을 많이 나가셔서 저도 한번 나가보고 싶네요.

질문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형빈: 가능제일교회를 다닌지 1년 된 신입인데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기억 있으신 분들은 그 기억 그대로 남겨주시고 나쁜 기억이라면 싹 털어주세요. 앞으로 저와 좋은 기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질문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구요! 이 기회로 많은 청년들이 형빈 청년에 대해 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PART4 전현정

"누군가 제결을 떠나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싶어요"

질문자 : 안녕하세요. 저는 올린 청년부 인터뷰팀 양민행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서 감사해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정 : 안녕하세요. 유채부 외계를 맡고 있는 전현정입니다.

질문자 : 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시작할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정 : 오늘이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한 시간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오늘 이 나와 오늘 이 누군가가 만든 그 순간들은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요. 내일이면 누군가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 길으로 가거나, 병에 걸리거나, 멀리 떠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누군가가 제 결을 떠나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보다는 가깝지 않거든요. 하나님보다 가까우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게 되니까요.

질문자 : 오늘이라... 멋있네요. 저도 매 순간 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좋아하는 취미는?

전정 : 사랑하는 사람이랑 전하는 거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만히 있구요.

질문자 : 자신만의 매력 포인트는?

전정 : 돈 아끼기예요. 절약 정신? 제 돈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돈도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유채부의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풍족하지 않지만 기만하지 않은 유채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자 : 오 그렇군요. 전돈 관리가 되질 않아서 평소 고민인더 노허우를 나중에 한 번 몰래 여쭙봐이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부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정 : 요즘 청년들이 제일 비싸고 힘들겠지만 그걸수록 자기 자신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살까지 살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머리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몇 년만 지나도 후회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나이 상관 없는 거아시즈? 내가 설마 그럴 리가 하다가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은 물론 부모님 건강도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몸이 많이 약해지실 때잖아요. 건강장진 꼭 받으시고 아 쓰시면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신경 써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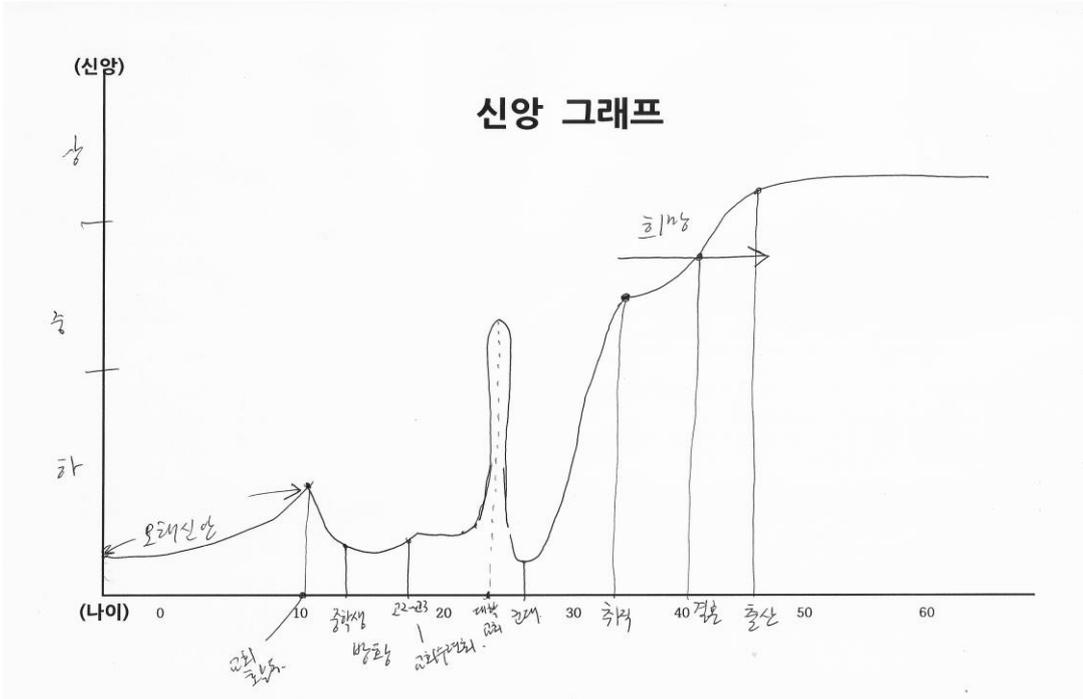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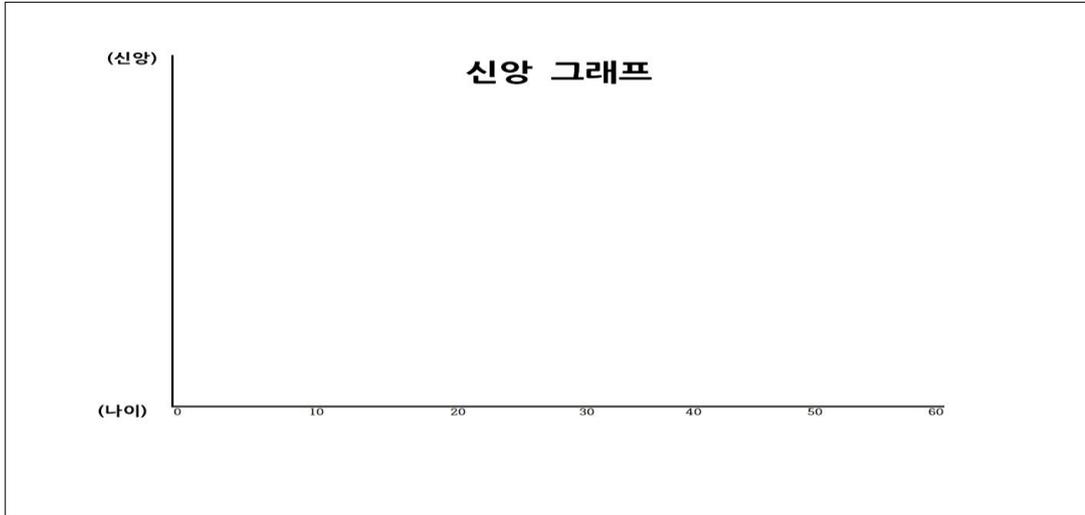
2017년 청년부 문화예배 일정표

	주제	비고
2월	TV 예능	3개 소그룹 모임 - 프로그램 속에서 복음 듣고 느낀 점 - 프로그램 속에서 복음 듣고 동의/반대하는 점
4월	오디션 프로그램	3개 소그룹 모임 - 프로그램 속에서 복음 듣고 느낀 점 - 프로그램 속에서 복음 듣고 동의/반대하는 점
6월	기독교연예인 인터뷰 영상	소그룹 나눔 종이 준비 - ‘내가 인터뷰를 받을 때 할 말 적기’
8월	미술 작품, 영상	소그룹 나눔 종이 준비 - ‘나도 복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종이 준비
10월	가요	3개 소그룹 모임 - 프로그램 속에서 복음 듣고 느낀 점 - 프로그램 속에서 복음 듣고 동의/반대하는 점

12월	영화	<p style="text-align: center;">3개 소그룹 모임</p> <p style="text-align: center;">- 프로그램 속에서 복음 듣고 느낀 점</p> <p style="text-align: center;">- 영화에서 복음 듣기 도전해 볼 계획 나눔</p>
-----	----	---

※주의점

- 1) 영상 및 음향 상태 사전 점검
- 2) 나눔할 때, 리더가 준비된 내용으로 나눔을 리드
- 3) 프로그램 속에서 복음을 듣고 동의하는 점과 반대하는 점 모두 들어보아야 함
- 4) 다른 프로그램 속에서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는지 나눔



VITA

PERSONAL DATA

Full Name: Byoung Geun Song

Place and Date of Birth: Youngju, South Korea, March 28, 1981

Parent`s Names: Jun Young Song / Jong Suk Seok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Daeyoung High School 45, Guseong-ro 150beon-gil, 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21, 2000
Collegiate: Gangneung University 7, Jukheon-gil, Gangneung-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B.A	Feb 14, 2005
Graduate: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M.div	Feb 14, 2014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Th.m	Feb 20, 201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Byoung Geun Song

Name typed

March 15, 2023

Date